

濟州島 뱀神話와 信仰 研究*

玄容駿** · 玄承桓***

목 차

- I. 序 論
 - II. 濟州島 뱀神話의 類型과 信仰實態
 - 1. 뱀神話의 類型
 - 2. 祖上神으로서의 뱀神話와 信仰
 - 3. 堂神으로서의 뱀神話와 信仰
 - 4. 一般神으로서의 뱀神話와 信仰
 - III. 韓國本土의 뱀 信仰과의 比較
 - 1. '엄'의 설화와 신앙
 - 2. 터줏가리, 조상단지 등의 신앙
 - IV. 濟州島民의 뱀 信仰 意識
 - V. 結 論
- ☐ 설문지, 통계자료

I. 序 論

이 글은 제주도 蛇神信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연원·본질·변천과정 등 총체적인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蛇神信仰의 기반이나 의식·실태 등은 그 신화에 잘 나타나는 것이므로 뱀신화의 분석을 통하여 그 신앙의 해명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제주도 뱀신화의 해명도 겸하게 될 것이다.

* 이 研究는 1994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濟州大 國語教育科 教授

*** 濟州大 大學院 博士課程修了, 文學博士

朝鮮朝의 제주도에 대한 문헌 기록을 보면 뱀 信仰이 매우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三十八에는 “회색 뱀만 보이면 이를 遮歸神이라 하여 죽이지 않는다(若見灰色蛇 卽以爲遮歸之神 禁不殺)”라는 기록이 있고, 金淨의 『濟州風土錄』에는 “이곳 풍속은 뱀을 몹시 두려워하여 神이라 받들고, 뱀을 보면 呪文을 외고 술을 뿌리며 감히 쫓거나 죽이지 않는다(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則呪酒 不敢驅殺)”라는 기록이 있으며, 李健의 『濟州風土記』에는 “섬 사람들은 구렁이든 뱀이든 막론하고 그것을 보면 府君神靈이라 하여 반드시 쌀과 맑은 물을 뿌려 빌고 죽이는 일이 전혀 없다(島人則 勿論蟒蛇 見之 輒謂之府君神靈 必以精米淨水洒 而祈之切不殺害)”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외부인의 눈에 비친 것을 보면 조선조시대 당시에도 제주도의 뱀 신앙이 한국본토에 비해 두드러지게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뱀을 神이라 관념하여 숭앙하는 습속이 있다. 곡물을 저장하는 <고팡>에는 <안칠성>이라는 신이 있다 하여 고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고, 집 뒤곁에 <주쟁이>를 덮어 <밭칠성>이라는 신을 모시는 집안도 있는데, 이 신들을 모두 뱀이라고 관념하고 있다. 또 표선면 토산리의 수호신인 여드렛당신을 본래 뱀이라고 하고, 이 신은 딸에서 딸로 따라와 모시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고 일반이 관념하고 있으며, 간혹 집안에 따라서는 一家 내지 一族의 수호신이 본래 뱀이라고 하여 지금도 모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데가 있다. 이러한 蛇神信仰에 대한 관념은 堂神이 뱀이라고 전승되는 마을의 처녀와 결혼을 꺼려하여 그 마을 처녀들이 혼기를 놓치는 일이 생기고, 그러한 마을의 여학생들이 도시 학교로 진학하여 방을 빌려고 해도 방을 빌려주지 않는 일까지 일어난다. 이것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제주의 사회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데서 제주의 蛇神信仰의 문제는 학문적인 해명은 물론, 현실적 사회문제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 제주도의 蛇神信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지금까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사실의 소개 보고나 단편적인 논급들은 제외하고 蛇神信仰을 본격적 주제로 다룬 논문만 보아도 5~6편을 헤아릴 수 있다. 일찍이 日人學者 秋葉 隆은 『濟州島の蛇鬼』라는 논문에서 본래 제주도는 蛇鬼文化圈이었는데, 한국본토에서 移入된 海村 新文化의 압박에 의해 蛇鬼文化圈은 좁혀져 가 오늘날 제주도 동남쪽 변방인 旌義縣 지역에만 잔존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내놓

있고,¹ 鳥越憲三郎은 「蛇神と兎山里の事件」이란 논문에서 兎山里 堂神神話의 처녀가 왜적에게 겁탈 당하는 화소는 明宗 7년(1552) 여름의 川尾浦 倭侵事件에서 실제 있었던 일의 설화화인데, 심방들이 迷信的, 呪術的 요소를 도입하여 그릇된 神託을 함으로써 과도한 蛇神信仰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² 이어 李起旭은 생태인류학적 시각에서 고찰하여 농작물을 쥐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지혜가 사회적 규율로 채택되고 끝내는 종교적인 해결책으로 고정된 것이 제주도의 蛇神崇拜라는 새로운 견해를 발표했고,³ 文武乘은 蛇神神話와 그 儀禮를 폭넓게 다루면서 蛇神은 農耕神·富神·穀物神·治病神·災殃神 등 여러 성격을 지니는 신임을 논의했다.⁴ 위의 여러 논문들은 제주도 蛇神信仰의 일부를 다룬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다루면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주도의 蛇神信仰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그 연원으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제주도의 蛇神信仰이 본래 어떠한 문화배경에서 제주도에 들어와 어떤 양상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오늘날 이 신앙에 대한 도민의 의식과 신앙실태는 어떠한가를 총체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의 해명을 위하여 이 글은 제주도의 甁神화를 분석하여 그 신앙의 실태와 대응시키면서 제주도 蛇神信仰의 실상을 밝히고, 나아가 한국본토의 그것들과 비교를 시도하여 제주도의 蛇神信仰의 위상을 밝힘과 동시에 그 연원·본질 등을 구명하고, 나아가 현재 제주도민의 蛇神信仰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오늘날의 蛇神信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이의 해결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1) 秋葉 隆, 「濟州島の蛇鬼」, 『朝鮮民俗誌』, 名著出版社, 1954, pp. 218~227.
 - 2) 鳥越憲三郎, 「蛇神と兎山里の信仰」, 『耽羅』 1號, 日本耽羅學會, 1988, pp. 21~55.
 - 3)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5, 제주도연구회, 1989, pp. 181~212.
 - 4) 文武乘, 「蛇神信仰」, 『濟州島 堂信仰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 132~171.

Ⅱ. 濟州島 蝮神話의 類型과 信仰實態

1. 蝮神話의 類型

제주도의 蝮神화는 蝮을 신으로 숭앙하게 된 내력·蝮의 신으로서의 성격·蝮을 신으로 모시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야기로서 심방들이 巫儀에서 노래하는 본풀이로 전승되고 있다. 이 蝮神에 대한 본풀이는 一般神으로서의 蝮神 본풀이, 堂神으로서의 蝮神 본풀이, 祖上神으로서의 蝮神 본풀이로 나누어진다. 一般神이란 천지·일월·山海·생사·질병·농경·어로·빈부 등 자연 및 인간생활의 일반적인 事象들을 관장 지배하는 신들로서 全島에 일반적으로 공통한 신이요, 堂神이란 한 마을 주민의 諸般事象 곧 생산·物故·호적·장적·생업·질병 등을 관장 수호하는 部落守護神이다. 이에 대해 祖上神이란 '조상' '초상' '일월조상' 등이라 통칭되는 신으로서, 어떤 집안이나 씨족에 오랫동안 모셔져 내려오면서 그 집안 내지 씨족을 수호해 주는 신이다. 제주도의 蝮神에는 일반신도 있고, 당신도 있고, 조상신도 있는 셈이다.

이들 각 유형의 蝮神본풀이는 蝮 신앙의 연원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첩경이 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 이들 본풀이의 분석을 주축으로 하여 그 신앙 실태를 추구해 나가기로 한다.

2. 祖上神으로서의 蝮神話와 信仰

'조상' '초상' 등이라 부르는 이 신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一家 내지 一族의 수호신이다. '조상' 또는 '초상'은 곧 '祖上'을 말하는 것이지만, 혈연 조상과는 다르다. 혈연 조상은 고조부모까지는 4代 奉祀로 그 父系 남자 자손이 祭官이 되어 儒敎式 祭法으로 제사와 명절의 茶禮를 행하여 모시지만, 이 '조상'신은 심방에 의해 巫俗儀禮인 곳으로 위해진다. 혈연조상이나 이 수호신이나 다 '조상'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불리지만 도민은 이 두 가지를 관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한다. 이 수호신은 있는 집안도 있고 없는 집안도 있다. 있는 집안이란 과거의 어느 혈연조상이 모시기 시작한 것을 그 자손이 전수하여 모시는 家系이고, 없는 집안이란 지금까지 그 혈연조상이 이런 수호신을 모시기 시작한 일이 없거나 모셔 오다가 중도에 중단하여 잊어버린 家系이다. 이 수호신은 아들에서 아들로 父系的 계승을 하는 것도 있고, 딸에서 딸로 母系的

계승을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이 수호신에는 실제의 어느 傑出한 醜연조상이나, 한 맺혀 죽은 처녀의 死靈이나, 擇日, 地官, 漢醫, 狩獵 등 특수한 직업을 가졌던 선조가 있는가 하면 어느 醜연조상이 어떤 기회에 '조상'으로 모시기 시작하여 내려온 신들이 있다.⁵⁾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 가운데 蛇神이 있다. 그 사례는 많지는 못하지만, 나주 기민창조상,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선흘리 안씨 집안 조상 등이 두드러진 것이다.

1) 나주 기민창조상

나주 기민창조상은 조천읍 안씨 집안의 수호신으로 父系的으로 계승되어 모셔지는 조상이다. 그 내력담인 본풀이부터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하자.

- ① 朝天의 安氏船主가 부자로 살아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 ② 어느 해 흉년이 들어 제주 백성이 굶어 죽게 될 때, 안씨선주의 재산이면 제주 백성을 사흘은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목사가 들었다.
- ③ 목사가 안씨선주를 불러 구휼할 것을 요청했다.
- ④ 안씨선주는 돈창고의 돈을 배에 가득 싣고, 송씨선주, 박씨선주와 같이 곡식을 사러 나갔다.
- ⑤ 팔도강산을 다 돌다가 나주 기민창의 곡식이 돈에 맞은 것을 알고 모두 사서 배에 싣었다.
- ⑥ 배가 출발하려는데 어떤 예쁜 처녀가 배에 오르는 것이 보여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배를 띄웠다.
- ⑦ 도중 돌풍이 일어 배 밑이 터져 곡식이 물에 잠기게 되자, 하늘에 빌었다.
- ⑧ 침몰하던 배가 물 위에 등등 떠 배 밑을 살펴보니 큰 뱀이 꼬리를 들고 배 밑구멍을 막아주고 있었다. 이 뱀이 조상임을 알았다.
- ⑨ 조천 포구에 무사히 배가 닿자, 함불을 피우고 뱀에게 내려서 집으로 가 시도록 빌었다.
- ⑩ 뱀은 내려오지 않았다가 밤중 안씨선주 꿈에 나타나 자신은 기민창의 곡식을 지키던 조상인데 곡식을 따라왔음을 밝히고, 안씨선주가 상단골, 송씨선주가 중단골, 박씨선주가 하단골이 되어 三名日, 忌日祭祀 때와 매년 칠갈이로, 또 큰굿을 하여 위하면 부자 되게 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단골들의 울타리 안에는 몸을 감출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새窠알로 간다고 했다.

5) 현용준, 『濟州島 巫俗研究』, 집문당, 1986, pp. 165~166.

- ⑩ 꿈을 깨고 보니 뱀(조상)은 조천 새곶알 구멍으로 들어갔다.
- ⑪ 그래서 이 단골들이 신의 지시대로 의하면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조상신이 되었다.”

위 이야기를 보면 ①~②는 신의 入島來歷插話요, ⑩~⑪는 신의 崇拜來歷插話임을 이내 알 수 있다. 입도내력삽화의 주요 화소는 (1) 신은 원래 나주 기민창의 곡물을 수호하는 穀神이라는 것, (2) 형체는 뱀인데 여성으로 변신한다는 것(곡식을 싣고 배를 띄울 때 저너의 몸으로 변신하여 곡식을 따라 배에 올라왔으니까), (3) 배의 침몰 위기에 신(뱀)이 침몰을 막아 곡식을 지켰다는 것, (4) 곡식을 따라 제주에 입도했다는 것 등이다. 다음, 승배내력삽화의 주요 화소는 (1) 신이 現夢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골(信仰民)⁷⁾ 지정, 致祭方法 등을 지시하고 있는 것, (2) 단골의 울타리 안에 좌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적당한 장소가 없으므로 새곶알(조천리의 바닷가 굴 같은 바위 틈)로 가 좌정했다는 것, (3) 富神인 조상신으로 위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유의해 둘만한 것은 蛇神이 (1) 穀神이라는 것, (2) 여성으로 변신한다는 것, (3) 집 울타리 안에 모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4) 致祭方法이 명절 제사 때와 매년 작은 굿인 철갈이를 하여 위하고 또 큰굿을 하여 위한다는 것 등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이 신의 성격과 致祭方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무은 조손의 주당(住堂)은 해 넘는 철갈이로 삼진 정월 신과세로 상을 받으옵고, 큰굿에는 열두석시, 중당골에 여섯석시 앓인 제 삼석시 일천간장을 풀리옵고, 큰굿 ㅎ민 큰밭 나습고 죽은굿 ㅎ민 죽은 밭 나수와 고대강실(高臺廣室) 높은 집 남단북담(南田北奮) 너른 밭 유기제물(鑿器財物) 천하거부 나수와 주던 조상입네다.

안씨선조(安氏船主) 상단골 무어 연양상고팡으로 삼명일(三名日) 기일제수(忌日祭祀) 메훤기(一器) 정성 받고 조손덜 번성시겨 동여국이 내 ㅎ지 ㅎ던 나주 ㅎ을 기민창 무곡섬(寶穀石)에 돌와오던 부군철성이 되옵네다.⁸⁾

6)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pp.786~797. 이하 『事典』으로 줄임.
 7) 信仰民을 단골이라 하는데, 성씨별로 계층이 있어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의 구분이 있다. 각 마을의 당신에도 마찬가지로다.
 8) 현용준(1980), 위의 책, p.796.

이 대목에서 이 신은 천하거부가 되게 해 주는 신(富神)이라는 것과 致祭方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巫儀로는 新年祭로서의 작은 굿(철갈이)을 매년 하고, 또 큰굿을 하며, 儒敎式 崇祖祭인 명절의 茶禮나 제사 때에 메 한 그릇을 정성으로 고평(곡식을 저장하는 팡)에 올려 고사 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큰굿 하면 큰 밭 사고 작은굿하면 작은 밭 산다”는 구절과 같이 이 신은 그 승배의 정도에 따라 富를 이루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의 “무곡섬에 따라오던 부군칠성(富君七星)이 되옵니다”라는 구절에서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인 이 蛇神이 뒤에 논의될 일반신으로서의 蛇神 <칠성>과 동일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이다.

나주의 기민창은 <飢民倉> 같기도 하나 『羅州牧輿地勝覽』 倉庫條에 보면 飢民倉은 없고, “濟民倉在州西十里”⁹⁾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濟民倉의 訛音인 것 같다. 제주가 흉년이 든 때 나주의 창고에 저장해 둔 곡식을 운반해다 구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본풀이는 그다지 오래지 않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일부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이 기민창조상에 대한 오늘날의 신앙실태를 보기로 한다. 신앙하는 집안의 사례를 하나 든다. 제주시 용담1동, 소위 대양밭집이라는 별호로 불리는 집안이다.

우리 시집은 기민창조상이 있는 집안이다. 우리 시집은 고씨이고, 우리 시어머니는 조천 안씨이다. 시어머니 친정 집안은 대대로 기민창조상을 모셔 내려온 집안이다. 시어머니가 시집와서 얼마 후 몸이 몹시 아파 잠을 쳐보니 친정 조상이 따라왔으니 위해야 병이 낫겠다고 하여 큰굿을 하여 병이 나은 후, 딸이지만 그 조상을 물려받아 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조상을 위하기 시작하자 집안이 차차 잘되어 큰 밭을 사고 부자로 살게 되었다.

이 내려온 내가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시집와서 보니 제사 명절 때에는 이 조상을 위하여 작은 상에 제물을 차려 책상 옆에 놓아 위하고, 제사가 끝난 다음 <잡식>한 것은 뒤꼍 장독 옆 정결한 곳에 붓고 있었다. 그리고 음력 정월이 되면 택일하여 <앗인제>로 하루 밤새도록 굿을 하고, 몇 해에 한번씩 3~4일씩 큰굿을 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장독대에 간장을 뜨러 갔을 때, <고팡>에 쌀을 뜨러 갔을 때, 온돌 아궁이에 불을 때려 갔을 때 등에 가끔 뱀이 나타나 보이는 것이 무서워서 질색이었다. 이

9) 『韓國地理誌叢書』 全羅道(1), 아세아문화사, 1983, p. 9.

런 때 시어머니는 쌀을 떠다 뿌리라고 가르쳐 주어서 쌀을 뿌리면 뱀이 사라지곤 했다. 한번은 윤돌 아궁이쪽에 뱀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쩔 줄을 몰라 망설이다가 그냥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신이 나타나 “나는 이젠 가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잠이 깨었다. 밝아서 가 보니 그 죽은 것으로 보였던 뱀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 없어졌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될 즈음에는 뱀이 매우 자주 나타났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자, 나에게 이 조상을 말아 잘 의하라고 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쌀을 사올 때마다 먼저 위로 조금씩 떠서 작은 항아리에 따로 넣어 두었다가 그것으로 제물을 차려 굿을 하곤 한다. 한번은 남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장이 나쁘다 하여 수술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입원한 아들을 데려다 큰굿을 하고, 당뇨자로 환부에 찜질을 하여 수술하지 않고도 나은 일이 있다. 또 내가 39살 때 어느 날 빨래를 거두어 방에 들어가다 보니 뱀이 방 한가운데 파리를 틀고 있었다. 겁이 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웃집 아저씨에게 말을 하니 치워 주겠다고 했다. 나는 곱게 모셔 달라고 부탁을 하니, 아저씨는 삼을 들고 들어가 뱀 앞에 삼을 놓고 “이레 올라옵서.” 하니, 뱀이 삼 위로 올라와 파리를 틀었다. 아저씨는 뱀을 뒷밭에 들고 가 내려 놓으려고 조금 삼에 충격을 주니 뱀이 땅에 떨어졌다. 그후 이것을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없어 몸이 아파 병원마다 돌아다녔는데, 모두 자궁에 혹이 났다고 하였다. 이젠 암이로구나 하여 낙담하고, 점이나 쳐보자 하여 점을 치니 조상을 확대한 탓이라 하여 큰굿을 하였다. 심방이 초감제를 하고 분부사뵐을 할 때, 조상이 나타나 “나를 삼으로 던져! 나를 삼으로 던져!” 하며 눈으로 본 듯이 그때의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인정을 많이 걸며 간절히 빌고 굿을 마친 후, 며칠 휴양하고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 아무 병도 없다고 하여 아픈 것이 나은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은 정말 영험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하던 대로 지금도 위하고 있다.

- 〈1994. 5. 15. 제주시 용담2동에서 대양뱀 며느리(62세)談, 필자 조사〉 -

이 이야기로 신앙의 실태나 의식을 잘 알 수 있다. 이 조상신은 父系的으로 전승되는 신이라 하지만, 이 사례는 딸에게 계승된 예다. 아들에서 아들로 계승되는 것이 원칙이라 흔히 말하지만 이로 보아 딸에게도 계승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담에서 본풀이에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 뱀이 나타났을 때 쌀을 뿌려 곱게 들어가게 한다는 것,¹⁰⁾ (2) 조상인 뱀이 자주 나타

10) 이 방법은 李健의 『濟州風土記』(1635년)에 「섬 사람들은 뱀을 보면 精米와 淨水를 뿌려서 빌고 죽이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한 기록과 같은 것이다. 지금도 쌀과 물을 뿌려 뱀을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흔히 쓴다.

나는 것은 不運의 징조라는 것, (3) 본래 명절이나 제사 때 고평(庫房)에 제물을 올려 고사 지내던 것이 쟈상 옆에 작은 상을 차려 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 (4) 신이 위해 주기를 알리는 신호로 질병 등 災殃을 주어 위하게 만든다는 것 등이다.

2) 옹포리 진도할망조상

이 조상신은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리 張氏 집안의 수호신이다. 이 神도 아들에서 아들로 父系 계승을 한다. 내력담은 張壽根 조사본¹¹⁾과 김영돈·윤치부 조사본¹²⁾ 2편이 있는데, 주 모티프가 위의 기민창조상 이야기와 비슷하므로 그 요지만 소개한다.

제보자의 8대祖 張谷方이 옹포리에 살았는데, 제주에 흉년이 겹쳤을 때 목포 방면에서 양곡을 한 배 가득 싣고 오는 도중 진도 바다에서 배 밑이 터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물구멍을 찾으려고 쌀 부대를 물 속으로 던지다 보니까甁 한 마리가 물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래서 얼마간의 양식을 싣고서 무사히 제주에 도착하게 되었다. 도착하니 8대 조모 윤씨가 가서 치마를 벌리고 "내 집 조상이거든 내 치마 안으로 올라오시오." 하니,甁이 치마 안으로 올라오므로 들고 가서 집 뒤 나무 아래에 돌을 둘러쌓고 모시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곧 부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甁신을 <진도할머니>라 해서 옹포리 장씨 집안에서는 대대로 조상으로 모시고,甁을 보아도 죽이지 않는다. 이들 집안에는 집 뒤곁에 이 신을 모신 <할망눌>이 있고, 제사 때, 명절 때, 그리고 丑日에 옹포리 본향당에 참배하러 갈 때 같이 곁들여서 주부들이 메를 올려 위한다. 그리고 남자들도 1년에 한 번 正月元日에 그 할망눌 앞에 자리를 펴고 제물을 올려 향을 피우고 세배를 한다.

이것이 요지인데,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잇고 있다.

그르후제(그 후에) 진도할머니를 우리 장가의 집만 모셨지요. 이 옹포(瓮浦)에서 그때는 의술도 웃고 아이 아프면은 굿하는 것이 흔 가지요. 약도 웃일 때니 굿하는 거 흔 가지고, 배암 보민 배암안티 비는 게 흔 가지요.

11) 장주근, 「部落 및 家庭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pp. 81~82.

12)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pp. 423~424.

지금도 배암 보민 빙니다. 그러니 옹포 전체에는 장가의 집이 진도할머니가 이시니 배암 보민 죽이지 말라, 오늘까지 그렇니다. 아이고고, 장침 귀신.

- (1984. 9. 4. 한림읍 옹포리, 장덕기(남·76세)제보. 김영돈·윤치부 조사) -¹³⁾

이 조상신의 入島來歷插話의 화소는 기민창조상의 그것과 같다. 穀神인 뱀이 침몰하는 배를 구조한다는 화소가 유포되었던 듯싶다. 이 이야기도 뱀이 穀神이요, 富神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崇拜來歷插話에는 (1) 부인이 치마에 뱀을 모시고 집에 갔다는 점, (2) 집 뒤곁에 <주쟁이>를 덮어 밧칠성 모시듯 모신다는 점, (3) 주부가 모시지만 남자도 세배를 올린다는 점이 다를 뿐, 나머지 致祭方法이 기민창조상의 경우와 같다. 다만 이 신화에는 蛇神이 여인의 몸으로 변신한다는 화소가 없으나 다른 蛇神들에 거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신도 예외는 아닐 듯싶고, 잘 모시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는 災殃神的 서술이 없으나 이것도 제주도 巫神의 일반적 성격이므로 이 조상신에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善屹里 安氏宅 조상

이 조상신은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안씨 집안의 수호신이었다가 제주시 삼도동(무근성)의 高氏宅으로 옮겨온 신인데, 이것도 父系로 계승되는 신이다. 이 조상신 이야기는 <선흘리 안판관 제주판관 본>이니, <고대장 본>이니 하여 심방들에게서 전승되는 신화이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안동 땅에서 안씨 3형제가 제주에 들어왔다. 어느 날 비를 피해 선흘리 배남밀름의 바위 밑에 3형제가 앉아 살아갈 길을 의논했다. 큰형은 남읍리로 가겠다 하고, 둘째는 가시리로 가겠다 하고, 막내는 선흘리에 그대로 살겠다 하고 했다. 이렇게 의논하는데, 주걱 같은 귀 달린 뱀이 앞에 나타났다. 큰형이 옷을 벗어 퍼놓고 "여기로 들겠습니까?" 해도 아니 들어오고, 둘째가 그리해도 아니 들어오고, 막내가 옷을 퍼서 들어오시도록 하니 설설 기어 들어왔다. 3형제가 헤어지고, 막내뽕생은 그 뱀을 메고 와 조상으로 모셨더니 집안이 잘되어 대대로 벼슬이 나와 제주판관이 나왔다.

안판관은 이 조상을 위하여 제주 성 안의 고씨 심방을 불러 항상 굿을 하였는데, 어느 해 굿을 할 때, 안판관은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인데 제주판관 밖에 못한다고 불평 소리를 하였다. 이 조상은 이 말이 섭섭하여 나를 위하

13) 「濟州說話集成」, pp. 423~424.

여 곳을 잘 해 주고 내 가슴을 풀어 주는 심방에게 따라가겠다고 하여 안채
 포에 들어갔다. 고씨심방은 곳을 마치고 巫具와 얻은 쌀을 안채포에 담아
 짊어지고 오는 도중에 안채포가 하도 무거워서 열어 보았더니 蠃이 들어 있
 었다. 고씨 심방은 안씨 집안의 조상이 따라온 것을 알고 집에 와 잘 보냈
 더니 부자가 되고 벼슬이 大靜縣監까지 나왔다.¹⁴⁾

이 신화는 崇拜來歷插話와 移轉崇拜插話로 되어 있다. 안씨 3형제 중 막내
 가 숭배하게 된 내력 삽화에는 (1) 蠃이 주걱 같은 귀 달린 蠃이라는, 蠃의
 형체가 명시되어 있는 점, (2) 모시기 시작할 때 남자이니까 옷을 벗어 蠃
 이 들어오니 모셔갔다는 점, (3) 모신 장소는 원 口誦에 '선을곳(善屹藪) 배남
 馬位版) 모사가지고 살아가는디……'¹⁵⁾ 라 하여 집 곁 옷밭에 모신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 移轉崇拜插話에는 (1) 불평하여 잘 모시지 않으면 蛇神이 잘 모셔 줄
 자에게 따라간다는 점, (2) 蠃이 巫具를 넣는 자루인 안채포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상외로 무거웠다는 점 등이 유의할 사항이다. 이 신은 두 집안을 수
 호할 때 '벼슬을 많이 낳게 하고 부자가 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벼슬을 한
 다는 것은 재물을 많이 모아 밭을 많이 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역시 富神의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볼 것이다.

4) 特性 綜合

이상, 조상신으로서의 蛇神을 3개 사례 살펴보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이 그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1) 신의 성격은 穀神이면서 富神이라는 점이다. 이것도 더 추구해 보면 농
 경사회에서는 곡식을 많이 저장하도록 지켜 준다는 것은 곧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 되므로 穀神은 2차적으로 富神의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2) 신의 형체는 큰 蠃 또는 주걱 같은 귀 달린 蠃인데, 이 蠃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격화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상본풀이의 蠃이 그렇다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蛇神들이 女神으로 인격화되는 것을
 보면 이는 일반적 관념이라 보인다.

14) 현용준, 위 「事典」, pp. 851~853.

15) 현용준, 위 「事典」, p. 852.

(3) 이 신의 속성은 모셔 위해 주도록 알리는 신호로 질병 기타의 凶驗을 주고, 잘 위하면 富와 안녕을 주는 대신 잘 위하지 않으면 질병 기타의 凶驗을 주는 災殃神의 성격이 있다. 즉 '큰곳 하면 큰 발 사고 작은곳하면 작은 발 사고,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하는 신'으로서 신앙의 정도에 따라 혜택의 도가 다른 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 巫神의 일반적 공통적 성격이므로 蛇神만의 특성이라 할 것은 아니다.

(4) 모시는 장소는 원래 안칠성처럼 고팡(庫房)에 모시는 형과 밧칠성처럼 뒤곁에 모시는 형 두 가지가 있는 듯하다. 기민창조상은 고팡으로 상을 받고 있고, 진도할망조상은 뒤곁에 할망놀을 만들어 모시고 있다. 선홀리 안씨 조상은 옷밭에 位版을 모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벼슬한 양반의 집에서 모신 특수한 방법이겠으니 이것도 뒤곁에 모시는 것과 같은 유형이라 볼 것이다. 이처럼 고팡이나 뒤곁에 모시는 것은 일반신으로서의 蛇神인 칠성과 같으니, 기민창조상본에 "무곡섬에 돌좌오던 부군칠성이 뒹웁니다"라 하여 칠성과 동일시한 것을 상기하면 조상신으로서의 蛇神과 일반신으로서의 蛇神이 信仰心意面에서 동일한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5) 致祭方法은 儒敎式 崇祖祭인 제사·명절 때에 고사를 지내고, 당에 참배하러 갈 때에도 겸하여 고사 지내며 巫祭로서 매년 철갈이를 하고, 또 큰곳도 한다는 것이다. 이 큰곳은 많이 할 수록 신의 혜택이 많이 베풀어진다고 믿어지고 있다.

3. 堂神으로서의 衺神話와 信仰

당신으로서의 蛇神은 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 여드렛당이 유명하여 人口에 회자되는데, 이외에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당목잇당신,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신, 제주시 외도동 두리빌렛당신 등이 있다.

1) 兪山 여드렛당신

토산리에는 당이 2개소 있다. 하나는 옷토산에 있는 것으로서 그 祭日이 매 7일(7일, 17일, 27일)이고, 다른 하나는 알토산에 있는 것으로서 그 祭日이 매 8일(8일, 18일, 28일)이다. 그래서 전자를 위치에 따라 '옷당', 제일에 따라 '일뒹당'이라 부르고, 후자를 역시 위치에 따라 '알당', 제일에 따라 '여드렛당'이라 부른다. 일반인들은 흔히 토산당이라 하면 蛇神을 모시는 당이라 인

식하는 경향이지만, 실은 후자인 여드랫당만이 蛇神을 모신다는 당이다. 그러면 먼저 그 본풀이를 보기로 한다.

이 당의 본풀이는 조사가 진척되어 있어 총 8편이 조사 기술되고 있다. 그 8편의 제보자, 조사자, 발표문헌은 다음과 같다.

여드랫당 본풀이 資料 異本 一覽¹⁶⁾

順 番	提 報 者	調 査 者	發 表 文 獻	年 度
A	西歸浦 南巫 朴奉春	秋 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B	濟州市 男巫 安仕仁	玄 容 駿	濟州島 토산당굿	1966
C	細花里 女巫 조산옥	진 성 기	南國의 巫歌	1968
D	西歸浦 男巫 박생옥	진 성 기	南國의 巫歌	1968
E	中文里 男巫 강만원	진 성 기	南國의 巫歌	1968
F	細花里 男巫 高奉仙	張 壽 根	韓國의 民間信仰	1973
G	城邑里 男巫 韓元平	玄 容 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
H	-	-	風俗巫音	1982

이들 각편의 자료는 神名, 人名, 地名, 그리고 화소 등에 약간씩의 변이를 보이거나, 전체적인 서사구조에는 변이가 거의 없다. 그 화소의 변이양상의 검토는 위의 A, B, G를 제외한 각편에 대하여 이미 金東燮이 한 바 있으므로¹⁷⁾ 여기서는 그 각편을 종합하여 서사전개만을 정리한다.

- (1) 이 神은 羅州 錦城山의 土地官이다.
- (2) 羅州에 부임하는 牧使마다 얼마없이 파직이 되어 올 사람이 없다.
- (3) 어떤 목사가 지원하여 간다.
- (4) 목사가 錦城山 앞을 지나가려 하니, 부하가 이 산엔 영기가 있으니 下馬하라고 한다.
- (5) 그대로 지나가려 하니 말발이 절어 갈 수가 없으므로 올라가 보니 큰 기와집에서 美女가 머리를 빗고 있다.
- (6) 사람이 귀신일 리 없다 하니 신은 큰 뱀으로 변하여 나타난다.

16) 대정읍 女巫 문정봉이 문창현으로 하여금 받아 쓰게 하고 구술한 것을 재정리한 자료로, 1928년에 이뤄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1982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風俗巫音(祝祀文)』, 上·下, 1994.의 해제 참조.

17) 김동섭, 『兎山堂 본풀이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pp. 23~40.

- (7) 뱀에게 불을 놓으니, 신은 바둑돌로 변하여 종로 네거리에 가 떨어져 있었다.
- (8) 제주의 康氏, 韓氏, 吳氏가 진상하러 서울에 갔다가 이 바둑돌을 주워 일이 잘된다.
- (9) 제주로 돌아오려 할 때 바둑돌을 버리니 바람이 막혀 배가 띄지 못한다.
- (10) 짐을 치니 보자기에 보풀이 있을 터이므로 이를 위해 굶을 하라고 한다.
- (11) 보자기를 열어 보니 그 바둑돌이 들어 있으므로 굶을 하니, 좋은 바람이 불어 배를 띄우고, 제주의 溫平里에 도착한다.
- (12) 溫平里에 도착하자, 바둑돌은 여인으로 변하여 온평리 堂神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차지한 신이 없는 兎山里로 가라고 가르쳐 준다.
- (13) 토산리로 가는데, 下川里에 이르니 그 마을 男神이 반하여 좇아와서 손복을 잡으므로 더럽다고 손복을 깎아 명주로 감는다.
- (14) 토산에 와 좌정한다.
- (15) 용왕신에게 인사하자, 날뿔뱀새가 난다고 하므로 손복을 깎은 사실을 말하니, 그 男神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욕하므로 그제야 후회하여 하천리 당신에게 불로 신호를 보내며 사모한다.
- (16) 神은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대접하는 자가 없으므로 왜선을 파선시킨다.
- (17) 빨래하러 갔던 한 처녀와 하녀가 파선되어 올라온 왜적에게 겁탈당하여 둘이 다 죽고 쌍묘로 묻힌다.
- (18) 神은 죽은 영혼으로 하여금 康氏의 딸에게 憑依시켜 급병을 준다.
- (19) 짐을 치니 마을 신 때문이니 큰굿을 하라 하므로 굶을 하는데, 아픈 딸이 일어나 깨 속의 명주를 내어놓아 내 간장을 풀어달라고 한다.
- (20) 명주를 내어놓고 보니 명주 틀에 작은 뱀이 말라 죽어 있다.
- (21) 백지에 뱀의 형상을 그려 놓고 큰굿을 하여 명주 고를 풀어 놀리니 강씨 딸의 병이 낫는다.
- (22) 이래서 이 신의 영험을 알고 堂神으로 위하고, 집안으로 들어서면 일월조상으로 위하게 되었다.
- (23) 이 신은 清明이 되면 구멍 구멍에서 나오고 霜降日이 되면 구멍 구멍으로 들어가며, 나뉘다니다가 무지한 사람에게 다살당하면 직성이 약한 사람한테 굶을 하게 하여 풀림을 받는다.
- (24) 이 신은 康氏를 상단골로, 吳氏를 중단골로, 韓氏를 하단골로 하여 11월 7일, 8일, 17일, 18일, 27일, 28일, 6월 7일, 8일, 17일, 18일, 27일, 28일을 祭日로 하여 송앙을 받는다.

이 본풀이는 4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1)~(11)은 入島來歷插話요, (12)~(15)는 坐定來歷插話이며, (16)~(22)는 崇拜來歷插話이고, (23)~(24)는 神性·단골·祭日插話이다.

첫째, 入島來歷插話는 ① 蛇神의 女人變身, ② 大蛇除治, ③ 바둑돌 변신, ④ 단골 選定, ⑤ 崇仰 入島話素로 짜여져 있다. 蛇神의 女人變身話素는 위의 조상신본풀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제주의 일반적인 蛇神觀이고, 大蛇除治話素는 金寧蛇窟傳說, 廣靜堂傳說 등 제주도 전설에 흔히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것이다. 신의 바둑돌 변신화소는 흔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바둑돌이 귀하던 시대 제주인들의 神觀이다. 제주도 巫俗神話에 보면 바다 건너에서 가 가지고 온 귀한 옷감이나 물건에 신이 붙어 따라왔다는 화소가 흔한데, 이 화소도 그러한 등속의 것이라 볼 것이다. 다음 康氏, 韓氏, 吳氏가 바둑돌을 주워 진상이 잘 되었다는 것은 신이 세 사람을 단골로 선정하였다는 화소요, 바둑돌을 버리니 바람이 막혀 배를 띄우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이 모시고 가도록 凶驗을 준 것이며, 그래서 굶을 하여 신을 워하자 좋은 바람을 만나 배를 띄워 입도한다는 崇仰 入島話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入島來歷插話는 전설에 혼한 화소와 제주인의 神觀에 의해 羅州 錦城山神이 제주에 입도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드렛당신이 실제로 羅州 錦城山神이 入島하여 좌정한 것이라는 증거는 찾을 길이 없다. 錦城山祠는 祠字가 다섯이나 되고 고려 때 國祭祠였으며 巫俗과 밀접한 神祠여서¹⁸⁾ 유명하였고, 위의 기민창조상 본풀이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 사람이 羅州에 자주 왕래했던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神話上으로만 이 신이라고 결부시킨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18) 「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文化社, 1964), 羅州牧 祠廟條

「錦城山祠: ……祠宇有五 上室祠在山頂 中室祠在山腰 下室祠在山足 國祭祠 …… 高麗 忠烈王四年 祠神降于巫言 珍島耽羅之征伐我有力焉 將士皆得賞而不我錄何耶 可封我爲定寧公 邑人寶文閣待制鄭興胤王而爵之 具輟其邑錄米歲歸五石于祠 每歲春秋降香祝幣祭之 本朝亦降香祝……」

여기에서 錦城山神이 무당에게 내려서 진도와 담리를 정벌한 것이 내 힘인데 왜 나에게만은 錄을 내리지 않으냐는 말을 했다는 것은 巫俗과 밀접한 관계의 神祠임을 말해 주는 동시에 제주인들이 이 신을 유명하게 여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둘째, 坐定來歷插話는 ① 좌정할 마을 찾기, ②男神과의戀情, ③坐定話素로 되어 있는데, 좌정할 마을 찾기 화소에서 濫平里 당신의 지시로 토산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 이 당의 형성이 온평리 본향당보다 후대의 일로 그리 오랜 옛날의 일이 아님을 말해주며, 下川里 당신과의戀情 화소도 하천리 본향당보다 형성이 후대라는 것을 말해 준다.

셋째, 崇拜來歷插話는 ① 신의凶驗, ② 신의認知, ③ 숭배 시작 화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삽화는 이 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면서도 오인하기 쉬운 대목이다. 신의凶驗은 신이 왜선을 과선시켜 왜적으로 하여금 처녀와 하녀를 겁탈하여 죽게 하고, 그 죽은 영혼을 단골의 딸에게 憑依시켜 급병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認知하게 되는데, 그것은 굿을 하다 명주 틈에 말라 죽은 뱀을 보아 신이 蛇神임을 알고, 뱀 형상을 그려 놓고 고를 풀어 놓는 굿을 하여 병이 낫았다는 것이다. 이 삽화는 이 신을 숭배하게 된 내력을 설명해 줌과 동시에 그 儀禮方式的 正當性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토산당굿에 보면 <방울퐁>이라고 해서 긴 무명예 4개의 고를 묶어 놓고 뱀에 맺힌 한을 풀어내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고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마지막에 무명을 뱀이 따리 튼 것처럼 서리어 놓아 뱀이 재생한 것을 상징시켜서 고광으로 모시는 제차가 있다.¹⁹⁾ 그러나 여기서는 그 흥협이 신을認知시키는 방법이라는 데 더 유의해야 한다. 왜선의 과선, 처녀의 겁탈로 인한 죽음, 죽은 영혼의 빙의로 인한 급병 등은, 신이 토산에 와 좌정하여서 석달 열흘을 기다려도 누구 하나 위해 주는 자가 없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단골들에게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행한 것이다. 이 방법에 유의하여 이 신을 災殃神이라고 흔히 말하는 경향이 있으나, 災殃神의 성격은 이 신뿐 아니라 모든 巫神에 공통된 성격이다. 제주도 당신이 단골을 정하는 방식을 보면 ① 신임을 알든 모르든 음식 대접을 잘해 주는 자를 단골로 정하는 것, ② 신은 고고하게 빠지고 있다가 위해 주는 자가 없으면 갖가지 凶驗을 내려 제사를 받고 단골로 정하는 것, 이 때의 흥협은 밤에는 신불(神火)로 낮에는 연불(煙火)로 나타나 보이거나, 주야로 통소, 피리 등 악기 소리를 비비둥둥 내어 이변을 보이거나, 벽력 풍우를 치게 하여 농사를 망치게 하고 가축을 해치거나, 어른에게 급증 아이에게 경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²⁰⁾ 이렇게 하여 신의 조화임을 인지케 하여 致祭

19) 현용준, 위 「事典」, pp. 558~561.

20) 「濟州島 堂神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pp. 130~131.

하면 병을 낫게 하고 단골로 정하는 것이다. 이 여드렛당신의 경우는 ②의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당신만의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災殃神의 인 성격을 강조할 것은 아니라 본다.

그 凶驗話素가 왜적의 겁탈로 된 것은 烏越憲三郎이 견해처럼 川尾浦 倭侵事件 당시의 사실을 소재로 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맞든 안 맞든 倭船 破船, 왜적 겁탈이란 화소가 그리 오랜 것이라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이 당본풀이의 형성은 그다지 오랜 옛날이라 할 수가 없다.

넷째, 神性·단골·祭日插話에 '清明이 되면 구멍에서 나오고 霜降日이 되면 구멍으로 들어간다' 함은 이 신이 뱀임을 말해 주는 것이며, '나돌아다니다가 무지한 사람에게 타살당하면 직성이 약한 사람한테 굶을 하게 하여 풀림을 받는다'는 것은 직성이 센 사람은 뱀을 죽여도 아무 일이 없고, 죽은 뱀을 본 직성이 약한 사람이 병을 앓아 굶을 해야 병이 낫는다는 말이다. 그 굶은 죽은 뱀에게 사죄하여 한을 풀어 주고 뱀을 재생시키는 모티프의 巫儀다. 이렇게 제삼자가 죄를 뒤집어써 앓는다는 관념은 이 여드렛당신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蛇神에 공통된 것이다. 또 '집안으로 들어서면 일월 조상으로 위하고 당신으로도 위한다' 함은 이 신이 본래 이 신을 모시고 왔다는 강씨, 한씨, 오씨 집안의 조상신으로 위해 오다가 그 신앙민이 확산되자 당신으로 위하게 되었음을 말해 주며, 또 그 신앙민이 먼 데로 시집가서 이 당에 오지 못할 경우 집안에서 조상신으로 모심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신은 딸에서 딸로 母系的 계승을 한다는 것이 특성인데, 조상신에는 父系로 계승되는 것과 母系로 계승되는 것이 있으니,²¹⁾ 이 신은 본래 후자에 속하는 조상신이었던 셈이다.

이상 보아온 바, 이 여드렛당 본풀이는 崇拜來歷插話 곧 신의 凶驗으로 인한 재앙을 당하고 숭배하기 시작한 내력 이야기를 강조하여 놓았기 때문에 일반 신앙민이나 연구자나 여기에 말려들어 이 신은 災殃만 주는 신처럼 인식하게 되었다. 康氏, 韓氏, 吳氏가 진상하러 갔을 때 이 신의 神體라 할 수 있는

21) 조상신은 父系로 계승되는 것이 많으나, 기민창조상처럼 父系繼承이 원칙이면서도 딸에게도 계승되는 예가 있고, 구실할망 조상처럼 온전히 딸에서 딸로 계승되는 조상이 있다. 구실할망은 羅州 金氏 집안의 딸에서 딸로 계승되는 조상이다. 현용준, 『事典』, pp. 798~804. 참조.

바둑돌을 주워 간직했을 때 진상이 잘되고, 이 신을 위해 굿을 하니 좋은 바람을 만나 무사히 제주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 신의 긍정적인 면은 거의 잊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본풀이는 이런 긍정적인 면, 곧 신이 내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서술이 생략되어 있다. 그 직능은 조상신으로서의 蛇神이나 일반신으로서의 蛇神이나 마찬가지로 농사의 풍요를 주고, 富를 주고 복을 주는 일면이 있는 신이라 해야 할 것이다. 신앙민이 본래 재앙만 주고 복을 주지 않는 신을 생각하고 섬길 리가 없음을 생각해도 가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반 도민은 어떻게 이 신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 신앙담을 몇 개 보기로 하자.

표선면 토산리에서는 뱀을 귀신이라 하여 모신다. 이 귀신을 흔히 토산귀신이라 하는데, 이 토산귀신은 딸이 시집 갈 때 반드시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 딸이 이 귀신을 위하게 되고, 이 딸은 딸이 다시 시집을 갈 때는 다시 뒤를 따라가 그 집에서 위하게 된다. 그래서 딸에서 딸로 전해 가므로 반드시 토산 사람이 아니더라도 토산과 외가가 연결된 집에서는 이 토산귀신을 위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의 딸에게는 구혼하는 자가 없게 되므로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것을 속여 딸을 시집 보낸다.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의 딸과 결혼하여 그 귀신을 모시지 않으면 그 남편이 병을 앓는 수가 많다. 이 병은 원인 모를 병으로 백약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여 남편이 죽어가도 부인은 토산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왜냐 하면 그 사실을 말하면 그 귀신에게 축원해서 병은 낫겠지만 결국은 이혼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토산귀신이 있는 집안은 많지만 비밀로 숨기고 있다.

- <1962. 8. 12. 초천면 함덕리, 안하운(남) 제보, 필자 조사> -

옛날 정의고을의 한 처녀가 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대정의 시집에서는 며느리가 정의고을의 여자인지라, 며느리의 치마를 훌훌 털면서 당신이 따라오지 않음을 확인한 뒤에 집 안으로 들여 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밭에 가 없을 때, 시아버지는 집 안에 노란 뱀이 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시아버지는 이 뱀이 며느리를 따라온 당신임을 직감하고 조그만 단지에 뱀을 담아서 땅 속에 묻어 버렸다. 며칠 뒤 며느리는 친정의 남동생이 위급하다는 전갈을 받고 시아버지와 같이 가보았다. 그 날은 동생을 위해 큰굿을 하고 있었는데, 굿을 하는 무당이 堂神이 숨이 막히고 복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빨리 그 뱀에게 물을 먹이고 살려 주었는데, 곧 며느리의 친정 동생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다.²²⁾

서귀포시 학림동에 있었던 일로서 어느 해 보리밭이었는데, 하루는 마당에 보리를 놓고 도리깨로 마당질을 하고 있던 어느 집에 <토산당신>이라 하는 작은 뱀이 떨어져 도리깨에 맞아 죽었다. 그 날 이후 그 집의 4살 난 아들이 영문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5~6일 만에 죽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죽은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것인데, 그 어머니는 뱀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²³⁾

옛날 감산리 사람이 칠성뱀을 보시는 토산리에 가서 신부를 맞이해 왔다. 얼마 후 감산리 신랑집 사람이 아파서 낫지 않았다. 짐을 쳐 보니 칠성뱀이 따라왔으니 굿을 하라고 했다. 주인은 굿을 시키고 뱀이 나오도록 굿을 하라고 하니 과연 뱀이 나타났다. 주인은 그 뱀을 옹기그릇에 담아 뚜껑을 닫고 땅 속에 깊이 묻어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토산 신부집 사람이 아파서 굿을 하게 되었는데, 신이 감산리에 가서 가두어져 있다고 했다. 토산리에서는 감산리 사둔집에 와서 그 칠성뱀을 찾아가서 굿을 하여 병이 나왔다. 그런 일이 있을 후 토산의 칠성뱀은 무서워하여 감산리 서쪽으로는 오지 않는다.²⁴⁾

많은 사례를 들지 않아도 도민들의 토산 여드렛당신에 대한 의식을 알 수가 있다. 주로 이 신은 ① 딸에서 딸로 뒤따라와 가족들을 아프게 하여 모심을 받고, ② 따라서 혼인을 꺼려하므로 남몰래 숨기면서 모시고, ③ 이 뱀을 죽이면 사람이 앓아 죽는 큰 재앙을 당하고, ④ 그러므로 토산 처녀를 며느리로 삼을 때는 그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 뱀이 따라왔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⑤ 이 토산당 뱀은 칠성과 같은 것이며, ⑥ 이 뱀이 보였을 때는 옹기그릇에 잡아 담는 등 철저한 방법을 써서 다시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식은 토산리와 멀리 떨어진 곳, 濟州牧과 大靜縣 지역 사람들의 의식인 것 같다. 위의 사례가 모두 이 지역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뱀을 '정의고을 뱀'이라 말하는 예가 나온 것이다. 토산리를 실제 조사해 보면 거기에서는 이러한 관념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토산리민들도 외부에 나가서 비로소 이런 이야기를 들

22) 羅貞姬, 「濟州島 民間信仰調査(1)」, 『濟大社會科教育』 3,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985, p. 144.

23) 나정희, 같은 책, p. 147.

24)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학교 담라문화연구소, 1985, pp. 479~480.

있다고들 한다.

딸이 시집와서 친정쪽 당신을 위하는 것은 토산 여자들만이 아니라 혼한 일이다. 친정 마을 당에 매해 참배를 갈 수 없을 때는 시집 마을에 당을 마련해 놓고 위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에는 <중산당>이라 해서 각 마을의 당신을 한 곳에 모아 모시는 당이 있다. 이 당에는 다른 마을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친정 마을의 당신을 종합적으로 모셔 놓고 모두 여기에 가서 친정 마을의 당신을 위하고 있다. 이것도 친정 마을 당신이 딸을 따라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유독 토산신만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토산신이 蛇神이라는 것과 잘 모시도록 재앙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高山 당목잇당신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당목잇당신은 '스해용궁또'라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이 신도 뱀이라 전승된다. 그 본풀이는 1편이 수집되어 있는데, 우선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범성이란 사람이 바닷가 검은여에 갔다가 石函이 떠 올라온 것을 주웠다.
- (2) 석함을 깨어 보니 황구렁이가 나왔다.
- (3) 깜짝 놀란 범성은 사죄하고 물으니 호직 장적 마을 차지하겠다 한다.
- (4) 당오름으로 모시니 보향당신이 되었다.
- (5) 이 신은 영험이 있어 신랑 신부나 목사까지도 당 앞을 지나갈 때 下馬하여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말발이 전다.
- (6) 이 당은 新昌, 龍水로 가지 갈라 가 당이 설립되었다.²⁵⁾

이 본풀이의 入島來歷插話는 石函에 담겨 표착한 황구렁이라는 데에 특성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정으로 석함에 담겨 여기까지 왔는지는 설명이 없다. 다른 蛇神 본풀이에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서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본풀이는 거의 잊혀져 가는 것이거나 퇴화되어 가는 중의 것이라 여겨진다.

蛇神이 석함에 담겨 표착하는 화소는 후술할 月汀 본향당 본풀이에도 나오고 칠성본풀이에도 나온다. 신이 석함에 담겨 표착하는 화소는 三姓神話의 三

25) 진성기, 「南國의 巫歌」,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pp. 715~716.

處女 표착을 비롯하여 金寧 靑龍宮당 본풀이, 新豊 下川本향당 본풀이, 中文 本향당 본풀이 등 제주도의 당신화에 혼한 화소이며²⁶⁾ 한국 남부로부터 渤海 沿岸·對馬島·大隅·臺灣·支那海沿岸·필리핀·安南의 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소위 箱舟漂着神話라 일컫는 것이다.²⁷⁾ 이만큼 넓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고대적 화소임을 말해 주는 것이니, 이 당의 신화는 매우 오랜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 당의 신화가 오랜 것은 이 당의 역사가 그만큼 오랜 데서 연유한다. 지금은 당목잇당이라 불리고 있지만 본래는 遮歸堂이라 했다. 遮歸는 高山里의 古名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 당에 대하여 “봄과 가을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 지낸다” “회색 뱀이 보이면 遮歸之神이라 하여 죽이지 않는다” “뱀을 모신 당인데, 당집 벽이나 들보나 주춧돌에 뱀의 무리가 서리어 있다. 제사를 지낼 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상스러운 것이라 한다” 등의 기록²⁸⁾이 있다. 이를 보면 이 당은 옛적부터 蛇神을 모신 당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고, 오늘날까지 그 신화의 잔해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신은 유명한 蛇神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兎山里 여드렛당신 모양으로 신앙민을 따라간다든지, 아니 모시면 큰 재앙을 준다는지 하는 민간전승이 없다. 다만 신령이 세어서 앞을 지날 때 下馬하지 않으면 말발이 전다는 전승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역사가 하도 오랜 당이어서 그 信仰傳承이 잊혀진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당신이 蛇神인데 그 神名이 ‘스해용궁또’²⁹⁾라 해서 龍神으로 불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蛇神이 곧 龍神이라는 관념이 있음을 알게 한다. 지금은 뱀이면 어떤 종류든 죽여서 안되는 神的 존재처럼 인식하게 되어 버렸지만, 본풀이 등 전승에 보면 ‘작박 ㄱ튼 귀 돌은 배염’(주걱 같은 귀

26) 현용준, 「三姓神話研究」,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pp. 192~196.

27) 三品彭英, 「神話と文化史」, 平凡社, 東京, 1972, p. 394.

2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八 濟州牧 風俗條
 「又於春秋 男女群聚廣壤堂遮歸堂 具酒肉祭之…… 若見灰色蛇則以爲遮歸之神 禁不殺 同 大靜縣 祠廟條 城隍祠; 一名 遮歸堂 俗祀蛇鬼 屋壁樑礎群蛇盤結 祭時以不現爲祥」.

29) ‘-또’는 제주의 堂神名에 흔히 붙이는 존칭집미사이다.

달린 뱀) '황구렁이' '灰色蛇' 등 특수한 뱀을 신이라 표현한 것을 보면 이런 특수한 뱀은 그 형태가 용과 통하는 것이라 보고 용과 동일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증거는 토산 여드랫당신의 의례 <방울뿔>에서도 볼 수가 있다. <방울〇>의례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긴 무명에 고를 4개 만들어 이것을 蛇神의 몸체와 한이라 상징해 놓고, 그 무명을 흔들며 대어 고를 풀어 내는 의례행위이다. 이렇게 고를 풀어 蛇神의 한을 푼 후, "그리 말고 청룡머리(靑龍頭) 갈룡머리(褐龍頭)도 못자." 하고는 요란한 악기 소리에 맞추어 그 무명을 바닥에 둥그렇게 서리어 놓아 마치 뱀이 꼬리를 들고 머리를 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청룡머리 갈룡머리 무었더니마는 흰 아구린 천아(天下)에 부떠간다. 흰 아구린 지아(地下)에 부떠가는구나……" 라고 노래하며 뱀이 생기 있게 재생한 것을 상징시키고, "팔모야광주 문 갈룡머리랑 상고광(上庫房)으로-" 라고 외치며 꼬리 든 뱀의 상징인 무명을 고광(곡식을 저장하는 방)으로 들어다 모신다.³⁰⁾ 이 의례행위는 蛇神의 한을 풀어 주고, 생기 있게 재생시킨 뱀을 고광으로 모시는 類感呪術的 의례인데, 이때 뱀을 '청룡' '갈룡'이라 부르고, 夜光珠를 물려 고광에 옮겨다 모시는 것을 보면 뱀을 용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야광주를 문 용을 고광으로 모시는 의례행위에서 兪山 여드랫당신이 일반도민이 인식하듯 재앙만 주는 惡神이 아니라, 豐農의 혜택을 내려 주는 龍神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蛇神信仰은 豐農과 관련되는 龍蛇信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위의 조상신으로서의 蛇神信仰에서 蛇神은 穀神, 富神의 성격이 있음을 말했지만, 곡식을 지켜 풍부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곡식은 豐農에서 나오는 것이니, 蛇神의 근원적 성격은 豐農의 신으로 귀결된다는 가설이 여기에서 성립된다.

뱀을 용과 동일시하는 사례는 또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巫儀는 아니지만 <용놀이>라는 곳이 그것이다. 文武兼이 조사한 <용놀이>곳은 심방집의 신국 <젯상계> 제차에서 연행된 것인데, 大蛇除治神話를 모의적으로 실연하는 것이다. 그 모습은 선반으로 꾸며 놓은 제단에 긴 무명을 두 개 내려뜨려 이것을 뱀이라 상징하여 놓고, 이 뱀을 신칼로 잡아 죽이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때 뱀을 찾는 장면에서 심방들이 천장으로부터 차례차례 살피 내려오면서 제단에 걸쳐져 늘어뜨린 무명 끝 뱀을 발견하고는 "청룡이여!" "청룡이여!"

30) 현용준, 위 「事典」, pp. 558~561.

“황룡이여!” “황룡이여!” 하며 수심방과 小巫가 대화로써 놀람을 표시하고 이를 잡아 죽이는 장면으로 넘어간다.³¹⁾ 이 때도 뱀을 ‘청룡’ ‘황룡’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祭次名도 <용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제주도 巫俗에서 뱀을 용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蛇神信仰은 龍神信仰과 동일시하는 龍蛇信仰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볼 때 遮歸堂의 蛇神도 본래 豐農神이라 하여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外都 두리빌렛당신

제주시 외도동의 두리빌렛당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당인데, 역시 蛇神堂이다. 본풀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永川 李牧使가 제주복사로 도입하여 골총(古塚)을 잘 수리하여 준 후, 김녕 궤넛깃당에 처녀 하나씩을 바쳐 굿을 하는 것을 알고 처녀를 받아먹는 큰 뱀을 퇴치했다. 밤 꿈에 골총 영혼들이 와서 빨리 영천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므로 박동지 김동지영감의 배를 타고 영천으로 가는데, 궤넛깃당신이 복수를 하려다 미처가지 못하여 목사의 아들을 죽게 했다. 무사히 돌아간 이목사는 꿈 값음으로 박동지 김동지영감에게 동지 벼슬을 주고, 소원을 물으니 제주 백성 살릴 양곡을 요구하므로 기민창고의 곡식을 한 배 가득 주었다. 박동지 김동지영감은 곡식을 싣고 오는 도중 배 밑이 터져 침몰해 가므로 하늘에 축수했더니, 깃대 위에서 큰 구렁이가 내려와서 물구멍을 틀어막아 무사히 돌북개에 도착했다.

곡식을 내린 후, 김동지 부인이 가서 치마를 벌리고 “내게 태운 조상이건나 치매래 기여듭서.”하고 뱀에게 말하니 뱀이 치마 위로 와서 서러졌다. 김동지 부인은 집으로 들고 가 모시고 조상으로 위하다가 두리빌레로 옮겨 모시니 당이 되어 2월 초하루 보름, 11월 초하루 보름 상을 받는다.³²⁾

이 당신의 入島來歷插話는 영천 이목사전설³³⁾에 기민창조상의 入島 插話가

31) 문무병, 위 논문, pp. 165~170.

32) 진성기(1968), 위의 책, pp. 339~402.

33) 永川 李衡祥 牧使傳説은 이 목사가 제주 복사로 들어와 신당과 절간을 5백씩이나 부수었는데, 그 중 신령이 센 당은 부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76, pp. 269~270.), 버려진 골총을 수리하여줘 골총 영혼들의 도움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奇度牧使』전설인데(현용준, 『제주도 전설』, pp. 74~78.), 이 본풀이에는 이 두 전설이 혼효되어 이야기가 꾸며지고 있다.

덧붙여져 있다. 본문에 박동지 김동지 두 영감의 요구에 따라 이목사가 기민창고의 곡식을 내어 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은 기민창조상을 당신으로 모신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崇拜來歷插話에 김동지영감 부인이 차마를 벌려 뱀을 집으로 모셔다 조상신으로 위하다가 당으로 옮겨 모셨다는 것을 보면 조상신을, 그 신앙민이 많아지자, 당신으로 모신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기민창조상신을 살렸으므로 여기서는 재론을 피한다.

4) 月汀 本郷堂神

북제주군 구좌읍 월정리 본향당신의 妻神도 본래 뱀이었다 하니, 그 본풀이의 요지를 보기로 한다.

황토고을 황정승대감이 4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어 탄식하다가 뽕개남은 중절에 수륙을 들여 딸을 낳았다. 딸이 일곱 살 때 황정승이 정승 살러 떠나는데, 딸이 아버지의 가마채를 따라가다가 들관에 떨어져 울다 지쳐 구렁이 몸으로 환생했다. 딸을 잃은 소식을 들은 황정승이 급히 돌아오는데, 그 들관에 오니 큰 구렁이가 가마채에 몸을 감았다. 황정승이 야단치니 구렁이가 떨어지므로 집에 오고 보니 딸 방에 큰 구렁이가 누워 있었다. 황정승은 石函을 짜서 구렁이를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리니, 석함은 떠 돌아다니다가 북촌리에 표착했다.

북촌리의 김침지영감이 고기 낚으러 가다가 석함을 발견하고 열어 보니 구렁이가 나오므로 놀라서 버렸는데, 딸 셋이 일시에 아팠다. 문점을 하니 그 구렁이를 위하여야 하겠다 하므로 잘 차려 대접을 했더니 딸들의 병이 일시에 낳았다. 김침지영감은 그 뱀을 조상으로 위하여 집 뒤 굴나무 밑에 모셨다.

이 조상 뱀은 다시 미녀로 변신하여 문점을 하니 월정리 당신 신산국이 배필감이라 하므로 곱에 차려 입고 신산국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월정에서 신산국을 만났다. 부부가 되어 아기 일곱을 낳았다. 하루는 잔치 구경하고 오다 복이 말라 돼지 밭자국의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 털이 걸리므로 이것을 불에 태워 먹고 집에 왔더니, 신산국이 더럽다고 하여 서당머처로 별거하라 하였다. 부인이 먹어 살 길을 마련해 달라고 하니, 단골들에게 홍험을 주어 얻어먹으라 하므로 단골들에게 두통, 구토, 복통을 주어 6월 8일, 18일, 28일, 10월 8일, 18일, 28일을 제일로 하여 돼지고기를 받아먹고, 1월 14일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남편 신산국과 같이 大祭日의 제의를 받는다.³⁴⁾

34) 현용준, 위 『事典』, pp. 649~655.

이 신화는 (1) 入島來歷插話 (2) 조상신으로서 崇拜來歷插話 (3) 당신으로서 崇拜來歷插話로 짜여져 있다.

(1) 入島來歷插話는 ① 祈佛生女 ② 蛇身變身 ③ 石函逐出 漂着話素로 되어 있고, (2) 조상신으로서의 崇拜來歷插話는 ① 石函拾得 ② 疾病 凶驗 ③ 致祭崇拜話素로 되어 있으며, (3) 당신으로서의 崇拜來歷插話는 ① 美女變身 ② 婚姻 7女 出生 ③ 肉食 別居 ④ 疾病 凶驗 ⑤ 致祭 崇拜話素로 되어 있다.

(1)의 入島來歷插話는 각 화소가 후술할 칠성본풀이와 극히 유사하다. 아마 칠성본풀이의 화소들을 차용하여 변이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2)의 조상신으로서 崇拜來歷插話도 각 화소가 칠성본풀이와 유사하다. 이것도 칠성본풀이에서 차용하여 변이시킨 것으로 보인다. (3)의 당신으로서 崇拜來歷插話는 칠성본풀이와 달라 이 신화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蛇神이 美女로 변신하여 스스로 배필을 찾아 다니는 것, 월정 본향당신을 만나 혼인하여 7녀를 낳는 것, 돼지 발자국의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을 불태워 먹는 것, 이것은 최소한도의 肉食을 말하는데, 이 육식 때문에 별거당하는 것 등이 다른 蛇神神話에 없는 화소이다. 그런데 肉食別居, 7女 出生話素는 제주도의 일뤼당(七日堂) 신화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화소이다. 어느 것이나 女神이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의 물을 빨아먹다가 걸린 돼지털을 불태워 먹어 부정하다는 이유로 별거당하고 있다. 다른 일뤼당신화에서는 최소한도의 육식을 하여 별거당한 후 7녀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³⁵⁾ 이 신화에서는 7녀를 낳은 후 육식을 하여 별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다르다. 이로 보아 이 화소들도 일뤼당 본풀이에서 차용하여 변이시킨 것 같다. 다음, 신이 먹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단골들에게 두통, 구토, 복통 등 急疾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致祭를 받는 것은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의 것과 같은 것이며 다른 당본풀이에도 단골을 정하는 대목에 흔히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병을 주는 신은 致祭하면 그러한 병을 거두어 고쳐 주는 능력이 있다. 월정리의 이 신도 두통, 구토, 복통 등을 고쳐 주는 治病神의 성격이 있다.

이상 보아온 바와 같이 이 신화는 칠성본풀이, 일뤼당본풀이 등의 화소를

35) 현용준, 「濟州島 甁神話考」,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992, pp. 101~102.

현용준, 「濟州島 巫俗研究」, 집문당, 1986, pp. 199~205.

수용하여 재구성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蛇神神話가 아니라 일궈당신화의 변이형이다. 따라서 그 신의 직능도 일반적인 일궈당신과 같이 育兒 治病神이다.

5) 特性 綜合

이제까지 蛇神插話を 가지고 있는 당본풀이들을 살펴 왔으니, 이제 이들의 특성을 종합하기로 한다.

(1) 신의 성격은 豐農神의 성격이 짙다.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는 災殃神의 측면을 강조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災殃神이나 治病神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 의례 〈방울뿔〉을 분석하여 보면 豐農의 龍蛇信仰이었음이 드러난다. 遮歸堂神도 그러한 것이고, 外都 두리빌렛당신도 본래 기민창조상신으로 穀神이지만 곡식의 풍요는 풍농에 있으므로 근원적으로 豐農神과 무관하지 않다.

(2) 이들 堂神은 조상신으로 숭배되어 오다가 당신으로 된 것이다. 곧 一家 내지 一族의 수호신으로서의 蛇神이 그 신앙민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部落神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신의 형체는 그대로의 뱀이거나 황구렁이 또는 회색 뱀으로 나타나는데, 본래는 특수한 모양의 뱀을 용과 동일시하여 풍농신으로 위하였던 듯하다. 말하자면 龍蛇信仰인 것이다. 이 蛇神이 여인으로 인격화함은 조상신으로서의 蛇神과 같다. 그리고 이 신들도 모셔 주기를 알리는 신호로 질병을 주며 '잘먹으면 잘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하여 다른 일반 巫神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토산 여드렛당 본풀이에는 이 속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4) 致祭方法에 있어 토산 여드렛당신의 경우 蛇神의 한을 풀어 주고, 뱀을 생기있게 재생시켜 고팡으로 모시는 극적 행위의 유감주술의례를 한다. 이때 뱀을 전혀 용과 동일시하여 야광주를 물려 모시는 것은 龍蛇信仰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5) 특히 토산 여드렛당신은 딸에서 딸로 母系繼承함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이 당신에 한한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나 다른 당신에도 있는 것인데, 토산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승의식이 그것을 강조하여 일종의 편견을 낳고 있다.

4. 一般神으로서의 뱀神話와 信仰

1) 칠성본풀이의 분석

일반신으로서의 甁신화는 칠성본풀이 하나가 있다. 칠성본풀이는 총 6편이 조사 기술되고 있는데, 그 일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칠성본풀이 資料 異本 一覽

順 番	提 報 者	調 査 者	發 表 文 獻	年 度
A	西歸浦 男巫 朴奉春	秋 葉 隆	朝鮮巫俗の研究上	1937
B	表善面 女巫 이무생	진 성 기	南國의 巫歌	1968
C	安德面 男巫 고창학	진 성 기	南國의 巫歌	1968
D	蘆左面 男巫 高大仲	張 鶴 根	韓國의 民間信仰	1973
E	濟州市 男巫 安仕仁	玄 容 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
F	-	-	風俗巫音	1982

이들 각편은 神名, 人名, 地名, 그리고 화소가 조금씩 달라 어느 것을 원형이라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원형에 가까운 것을 재구하는 데는 甁을 칠성이라 부르는 근거가 되는 삼화를 배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서사전개의 논리성과 합리성을 염두에 두어 재구해야 한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각편을 종합하여 서사전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장나라 장설봉과 송나라 송설용이 부부가 되어 사는데,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한다.
- (2) 동개남 은증절 중이 시주를 받고, 칠성제를 드리면 부자가 되고 자손도 번성할 것이라 말해 준다.
- (3) 부부는 칠성단을 만들어 정성을 다하여 칠성제를 지낸다.
- (4) 하늘의 여섯 대성군이 내려와 웅감하고 복을 주고 가는데, 한 성군이 늦게 와 보니 이미 다른 성군들이 복을 다 주었으므로 부부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고 간다.
- (5) 부부는 칠성제 드린 것을 후회했으나, 나라에 변란이 일어나자 장님이 된 덕분에 화를 피해 살아난다.
- (6) 부부를 장님으로 만들었던 성군은 다시 부부의 눈을 뜨게 해 준다.
- (7) 눈이 밝아진 부부는 칠성제의 효험을 알고 다시 칠성제를 드리니, 이번에는 유태하여 딸아이를 낳는다.
- (8) 아이가 일곱 살 되었을 때 부부는 벼슬을 살러 가게 되어 여종에게 딸아이를 맡기고 떠난다.
- (9) 여종이 물 길러 나간 사이 아이가 여종을 찾으러 나갔다가(또는 부모의 가마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다.

- (10) 지나가던 중 가운데 세 번째 중이 아이를 주워 데리고 다니며 잉태를 시키고 장설룡 집의 말판돌 밑에 묻어 둔다.
- (11) 장설룡 부부는 아이 때문에 중도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 아이를 찾다가 시주 받으러 온 중의 말을 듣고 이 중의 소행임을 알아 대노하여 중을 쫓는다.
- (12) 부부가 아이를 찾고 보니 일곱 아기를 배고 있었으므로 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리니, 석함은 떠 돌아다니다가 함덕에 표착한다.
- (13) 함덕의 일곱 잠수(해녀)가 석함을 발견하여 서로 자기가 주웠다고 다투는데, 한 남자가 그것을 보아 중재하고 석함을 열고 보니 뱀 여덟마리가 들어 있으므로 장그럽다 하여 내던진다. 그 후로 일곱 잠수와 이 남자가 신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
- (14) 문점을 하니 남의 나라에서 온 신을 박대한 죄라 하여 굿을 하여 위하니 신병이 낫고 부자가 된다.
- (15) 이웃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칠성당을 만들어 위하니 함덕 마을이 부촌이 된다.
- (16) 뱀들은 다시 함덕 마을을 떠나 성안으로 들어오니, 칠성골 송대장 부인이 보고 집안으로 모셔가니 그 집이 일시에 거부가 된다.
- (17) 관원이 지나다가 뱀들을 보고 더럽다고 침을 뱉으니 관원은 임병이 난다. 문점하고 굿을 하니 병이 낫는다.
- (18) 뱀들은 각기 차지할 곳을 정하여 송대장 집을 떠나 좌정한다. 그 중 한 마리는 집 위의 <주쟁이> 속에 좌정한 밧칠성, 한 마리는 고방(庫房)에 좌정한 안칠성이 된다. (차지하여 좌정한 곳은 각편마다 다르니, 그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칠성의 管掌處 一覽³⁶⁾

이본 구분	「朝鮮」	「南國」(이)	「南國」(고)	「民間信仰」	「事典」	「巫音」
母	전담부군 : 복과 명을 지킴	자손번성, 우마번성, 오곡풍동	아기번성, 육축번성, 오곡번성	밧칠성	고방(방) 안칠성	
1女	東軒할망	동안(東軒)	동창문	內東軒차지	추수뭇차지 추수할망	獄지기

36) 文獻 表示에 「朝鮮巫俗의研究 上」은 「朝鮮」, 「南國의 巫歌」 이무생본은 「南國」(이), 「南國의 巫歌」 고창학본은 「南國」(고), 「韓國의民間信仰」은 「民間信仰」,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은 「事典」, 「風俗巫音」은 「巫音」으로 각각 표시한다.

2女	官廳할망	환상창고	서창문	外東軒차지	吏房 刑房 房차지	果園
3女	馬房할망	칠성골 염색할망	북창문	獄할망	獄차지 獄지기	官廳할망
4女	使令房	남창문		東안할망 (客舍 열명 받음)	果園차지 果園할망	잠수(해녀) 불덕차지
5女	使令할망		쇠돈 과원할망	칠성골 말혹차지	倉庫차지 倉庫할망	밭칠성
6女	姣生할망		직세 장통할망	문직할망	광청못차지 광청할망	토산신의 심부름
7女	果園할망	果園	西歸 官廳할망	안칠성	집뒤 밭칠성	大靜의 穀神

이 본풀이는 (1) 出生插話 (2) 入島來歷插話 (3) 崇拜來歷插話로 짜여져 있다.

(1) 出生插話는 七星祈禱 女兒出生話素가 주된 것이다. 여러 異本에는 祈佛 出生으로 되어 있지만, 甁을 '칠성'이라 부르는 근거가 되는 화소가 된 本을 원형으로 택한 것이 이 삽화이다. 七星祈禱 출생이든, 祈佛 출생이든, 이 화소는 그리 오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七星祈禱 출생은 北斗七星信仰이 들어온 이후의 것이고, 祈佛 출생은 불교가 수입된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이 화소는 북두칠성신앙이 수입된 이후, 북두칠성의 영기로 7女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용하여 蛇神神話가 改變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본래의 蛇神 출생 화소는 더 古代的 모티프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2) 入島來歷插話는 ① 중의 아기 잉태 ② 石函逐出 ③ 七女出生 ④ 蛇身變身 漂着話素로 되어 있는데, 중의 아기 잉태나 7女 출생 화소는 불교와 북두칠성신앙 수입 이후의 요소이고, 石函逐出, 蛇身變身 漂着話素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대적 화소이다. 하고 보면 원래는 이 蛇神을 '칠성'이라 부르지도 않았고, 그 신화도 더 고대적 모티프로 출생하여 석함에 담겨 표착한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蛇神을 '칠성'이라 부르게 된 것은 '七星祈禱 出生'화소를 수용하여 신화를 개변시킨 후의 命名일 것이다. 그리고 그 甁의 수도 꼭 7마리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3) 崇拜來歷插話는 3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함덕리 해녀들이 조상신으

로 숭배하게 된 내력이고, 또 하나는 칠성굴 송대장집의 조상신으로 숭배하게 된 내력이며 마지막은 8母女 뱀이 각처를 관장하여 숭배를 받게 된 내력이다. 이 崇拜來歷插話에는 다른 蛇神神話와 마찬가지로 모시도록 알리는 신호로 질병을 주어 모심을 받는 화소가 있고, 잘 모시면 부자가 되게 하는 신으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함덕리 해녀들과 칠성굴 송대장집의 조상신으로 모심을 받다가 8母女 뱀이 각처를 관장하여 분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蛇神이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인 조상신으로 모셔지다가 그 신앙이 전도민에 일반화되면서 一般神으로서의 蛇神이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화의 문맥 그대로 함덕리 해녀 집안의 조상신에서 칠성공의 송대장집의 조상신으로, 다시 각처의 수호신으로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 이해해서는 안된다. 여기의 숭배 집안의 순서 서술은 이야기를 조리 있게 서술해 놓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함덕에도 蛇神을 모셔 부자가 된 집안이 많고, 칠성굴(현 濟州市 一徒洞)에도 송대장이 蛇神을 모셔 부자가 되었던 과거의 사실이 있으므로 그것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로 연결시켜 놓은 것 뿐이다. 이 蛇神神話가 고대적 화소로 이루어져 오랜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이 蛇神信仰이 그만큼 역사가 오랜 것이라 본다면 조천면 함덕리보다 제주시 일도동 쪽에서 먼저 신앙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一徒洞은 이미 三姓神話에서 三神人이 거주지로 정하여 農牧生活을 시작한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蛇神은 여기저기에서 집안의 수호신이나 다른 신으로 모셔지던 사실이 이렇게 崇拜來歷譚으로 整序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이 신들이 마지막 管掌處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칠성신의 管掌處 一覽을 한번 자세히 보자. 각 異本마다 어떤 통일성이나 공통성이 없다. 이 異本들엿 것을 모두 합쳐 분류하여 수로 나타내어 보면 農神 穀神 富神類가 7, 官廳關係神類가 9, 水神類가 2, 기타가 3으로 통계된다. 農神 穀神 富神은 이해가 가지만 官廳神 등은 대체 이 신이 어떤 성격의 심임을 말해 주는 것인지 알른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이 신의 본풀이를 좀더 자세히 검토하여 그 성격을 구명해 봄으로써 풀릴 것이다.

제주시 용담동의 男巫 안사인이 구송한 칠성본풀이에서 이 신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을 보면,

▲. 일곱습수 송침주영감이 전세남을 허연 칠성새남을 허난 몸엿 신병 조아

치고 동서으로 먹을 년 입을 년 나수와 천아거부가 뒹웁네다.

일곱손수 송첨주영감이 서모오름 앞의 칠성당을 꾸어놓고 우로허여가난
똥 사름덜도 “나도 ㄹ찌허저” 우로허여 함덕막을 부촌이 뒹웁네다.”³⁷⁾

- B. 송대장부인이 금산골에 간 치매 벗언 물또에 노아두고 물을 들린 나오
란 치매 안에 ㄹ레여보난 일곱아가기 소랑소랑 치매각에 누어시난 송대
장부인이 “나안타 태운 초상이건 어서 우리 집으로 급서.”

치매각에 싸아진 연양상고팡으로 가 모샀더니 송대장침이 뎨도총이 알
게 천하거부뒹웁네다.”³⁸⁾

- C. “일곱췌 아긴 이들로 가겠느냐?”

“어머님야, ㄹ정굴 신정굴낭 알로, 청주쟁이 흑주쟁이 청지에 흑지에
알로, 뒹으로 역대부군칠성으로 들어상 구시월 나만 ㄹ정굴 신정굴 진
상받앙, 어머님 우리 일곱성췌 낱췌 ㄹ난 가슴인덜 답답이사 아너웁네
가? ㄹ정굴 신정굴 진상을 올리건 어머님 답답한 가슴 시원석석이 여이
단복 싫단 가슴이나 준질물서.”

“서론 아기 부모에 효심헨구나.”

뒹으로 역대부군으로 들어사고,

“어머님은 어딜 가쿠가?”

“난 연양상고팡으로 대독 알로 소독 알로 검은 독 노린 독 알로 대두지
소두지 알로 섬지기 말지기 뒹지기 흡지기 마련해야 열두시만국을 거두
왕 안칠성으로 들어상 연어먹을노라.”

어멍국은 상고팡 안칠성으로 들어산 열두시만국을 거두와 죽년 칠성워
네다.”³⁹⁾

A는 함덕리 일곱 잠수(해너)들이 모시니, 천하거부가 되었고, 함덕 사람들
이 같이 모시니 역시 富村이 되었다 하여 富神임을 말해 주고 있고, B는 칠성
골 송대장 집에서 이 뺨을 모셔서 천하거부가 되었다 해서 역시 富神임을 말
해 주고 있으며, C는 뺨의 8母女가 각기 직분을 차지하여 갈 때 일곱췌 딸과
어머니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다. 일곱췌 딸은 뒤곁 굴나무 아래 주쟁이(주저
리) 밑으로 좌정하여 ‘역대부군칠성’이 되겠다 하고, 어머니 뺨은 고팡(庫房)
항아리 아래로 들어서서 ‘안칠성’이 되겠다고 하고 있다. 전자를 밧칠성, 뒹
칠성, 또는 뒹할망이라 하고, 후자를 안칠성 또는 안할망이라 한다. 이 안칠
성과 밧칠성의 직능은 다음의 비뎨(祈願辭說)을 보면 분명해진다.

37) 현용준, 위 「事典」, pp. 425~426.

38) 현용준, 위 「事典」, pp. 427.

39) 현용준, 위 「事典」, pp. 429~430.

칠성님 난산국 신풀었아옵기, 안칠성님에서 보리농사 곡을추곡 시만국(新萬穀)을 만발(滿發)시경 이간주당(此家內住堂) 대독(大鑿) 소독 검은 독 노린 독 대두지 소두지 섬으로 말로 뉘로 흙으로 열두시만국을 신나습고, 칠성님 마불림 나사지 말앙 쟁사농 매사농 상맛을 주맛을 하맛을 웨도리 내도리 상가지 송가지 울성장안 울담 네담 나아상 눈에 펜식하게 말곡, 뒤으로 뒷칠성님이랑 유기제물(鑿器財物) 허튼 금전 신나수와 괏모야광주를 신나습고, 이간주당 천하거부 시겨줍서.⁴⁰

보는 바와 같이 안칠성에게는 豊農을 시켜서 곡식은 항아리에 가득 들어오게 하기를 빌고 있고, 뒷칠성에게는 유기제물, 흩어진 금전을 나오게 하여 천하거부시켜 달라고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안칠성은 豊農神, 穀神의 성격이고, 뒷칠성은 富神의 성격이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유기제물, 금전이 나와 부자가 되는 것은 천석꾼이니 만석꾼이니 하여 풍농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근원적으로는 豊農神이라는 데로 귀결된다. 따라서 안칠성과 뒷칠성은 풍농신의 表裏關係여서 본래 같은 성격의 蛇神이요, 그것의 분화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

이것을 방증하는 자료에 『風俗巫音』 칠성본풀이의 한 대목이 있다. 일곱째 딸 뱀이 大靜으로 가겠다고 할 때 어머니 뱀과의 대화이다.

"일곱째 딸은 어들로 갈내?" "대정으로 가쿠다." "그디 강 어뎡 할내?"
 "농잠대에 거러졌다가 울싼장안 도라당기당 날 거슬라 하영 죽이건 성지성
 팬 외지외팬 큰상 밧정 공 갑흐곡 일년 삼정월로 삼사월겨장 고사 하르밤
 집집마다 받아 먹으쿠다." "아니 주면 엇뎡할내?" "곡식 안되개 하쿠다."
 "아고 써운여, 되도록 잘하라."⁴¹

'쟁기에 걸어졌다가 사람이 건드려 죽이면 姓便 外便 곧 親戚 外戚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주어 큰상을 바치도록 하여 얻어먹겠다'는 딸에게 어머니가 '대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곡식 아니되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하고 있다. 흉년이 들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은 잘 위하면 대풍년이 들게 해 주겠다는 말도 된다. 병을 주는 신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이고, 흉년이 들게 하는 신은 또 풍년이 들게 할 수 있는 신인 것이다. 여기에

40) 현용준, 위 『事典』, pp. 430~431.

41) 『風俗巫音(祝祀文)』(上), 卷之七, pp. 428~429.

서 보면 이 蛇神의 豐農神의 성격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穀神 富神 등은 이 豐農神의 機能 分化인 셈이다.

이 신이 豐農神이란 성격이 밝혀졌으니 官廳關係神이 된 이유도 여기에서 풀려간다. 농경사회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풍년이 들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걱정이 없고, 통치가 쉬워진다. 이런 데서 각 관청에서 이 풍농신을 모셨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巫俗을 迷信視하던 儒敎理念의 統治國家인 조선조에 들어와서의 일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문헌 기록이 없어 언제부터 숭배가 시작되었는지 논쟁을 댈 수는 없지만, 추정을 편다면 제주도에 농경이 시작되었을 때, 아니면 멀리 耽羅國 시대부터 지배계급들이 통치기관에서 모시기 시작한 것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미 耽羅國 시대에 일반 민중들의 숭배대상이 되었고, 또 통치기관에서도 모셔왔는데, 耽羅國이 高麗의 중앙집권제 하에 들어서도 역시 전통적 신앙은 없애지 못하고 조선조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보인다. 그래서 東軒, 吏房 刑房들이 집무하는 官署, 倉庫, 獄, 馬房, 使令房 등 각처에 모셨던 잔영이 본풀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본풀이에 나오는 각 管掌處에 전부 모셨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본풀이는 이 8母女 뱀의 수에 맞게 나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8母女 뱀의 삼화는 후대의 說話化이고, 본래는 같은 豐農神의 성격의 하나의 蛇神을 먼 옛날부터 민간차원에서도 모시고 관청에서도 모셔왔다는 말이다. 이러한 官廳關係神을 '관청할망'이라 통칭하는데, 현재도 그 관청할망이란 堂神이 엄연히 있다는 것이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

관청할망이 모셔져 있는 당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당과 서귀포의 관청할망당이 두드러진 것이다. 城邑里는 조선조 때 旌義縣廳 소재지인데, 이 마을의 당은 지금의 日觀軒 구내에 古木을 神體로 하여 돌담을 두르고 自然石으로 祭壇을 만들었다. 그러던 것이 1975년 日觀軒을 복원시키며 고적 구내에 당이 있는 것이 보기 싫다 하여 울타리 바깥으로 옮겨 자그만 슬레이트집을 짓고 위패를 보시는 형태로 고쳐 놓았다. 이 당을 '안할망당'이라고 하며 또 관청할망이라고 한다. 안할망이란 곧 안칠성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안칠성이 官廳神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가 旌義縣 관청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蛇神을 개인 차원에서는 집 안 고팡에 모시고, 官 차원에서는 관청 구내에 모셨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본풀이는 칠성본풀이와 같

은 것이어서 蛇神이 이 당신이 되었다는 내력을 담고 있다. 현재 성읍리민들에게는 이 신이 蛇神이라는 관념이 거의 없어지고, 마을의 수호와 豐農, 그리고 家內安寧을 지켜 준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서귀포의 관청할망은 官廳神的 성격이 역력히 남아 있다. 이 당은 본래 서귀포 원 시가지 중심부에 있었는데, 오래 전에 헐리고, 송산동 속칭 소남머리 바닷가 바위 틈으로 옮겨 위치하다가 그 바위가 무너져 내리자, 약 15년 전에 속칭 다구리라는 곳에 祭場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당이 원래 원 시가지 중심부에 있었다는 것은 본래 西歸鎮의 관청 구내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당은 이름이 '칠성당'이라 하기도 하고, '관청할망당'이라 하기도 한다. 그 본풀이를 보면 "들어사민 칠성, 나사민 관청츄지."라는 말로 시작하여 濟州牧使가 島一周 巡歷을 돌면서 감사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내용의 서술로 되어 있다.⁴²⁾ "들어사민 칠성, 나사민 관청츄지"라는 말은, 이 신은 개인의 집으로 들어서면 칠성신으로 모셔지고, 公共의 신으로 나서면 관청을 차지한 신으로 모셔진다는 말이다. 개인적 차원의 칠성신이 공공적 차원의 관청신이 된다는 것이니, 蛇神 칠성을 관청에서도 위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이 신은 공무원 집안에서 가서 기원하면 공직이 무사하여 성공하게 해 주며, 특히 소송에 걸린 사람이나 죄인의 가족이 가서 정성을 잘 드리면 소송에 이기고 죄의 형기가 줄어들며, 감옥에 있더라도 편안히 잘 지낸다고 한다. 그래서 서귀포 시민뿐 아니라 각처에서 관청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기원하러 오는 이가 많다.⁴³⁾ 이러한 신앙적 잔영들은 바로 蛇神 칠성을 관청 차원에서도 모셔 내려왔다는 방증이 된다.

다음, 蛇神 칠성이 '추수못 차지 추수할망' '광청못 차지 광청할망' '잠수(해녀) 불턱 차지신'⁴⁴⁾ 등이 되었다는 것은 뱀을 용과 동일시한 龍蛇信仰이었으므로 水神, 海神 등으로도 관념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제주도의 민간신앙에 있어 蛇神信仰은 고래로 절대적이었다고 할 만하다.

42) 현용준, 위 「事典」, pp.741~743.

43) 현용준, 「서귀포송산동칠성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678~679.

44) '불턱'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녀들의 탈의장과 같은 곳이니, 불턱차지신은 海神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오늘날 도민의 신앙실태를 잠깐 보기로 하자. 관청신으로서의 칠성 신앙은 위에서 보았으니, 家庭信仰으로서의 칠성신앙만 언급한다. 오늘날 칠성은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나누어져 신앙되고 있다.

안칠성은 그 信仰領域이 全島的이다. 물론 아니 위하는 집안, 아니 위하는 마을도 적지 않지만 전도에 집집이 위하는 집안이 산재해 있다. 구좌읍 한봉리 같은 마을은 거의 집집마다 위한다. 그 위하는 방법은 崇祖祭인 제사, 명절의 茶禮 때 고향(庫房)의 쌀독 뚜껑 위에 제물을 차려 올리는 것이다. 이는 주부가 맡아서 하는데, 제물을 올려 배례를 하는 일은 없고, 本祭가 끝나면 올렸던 제물을 모두 조금씩 떠 모아 그 쌀독 뒤쪽 바닥에 붓는다. 이를 '잡식'이라 한다. 이때의 쌀독은 반드시 白米의 독이 아니라 잡곡의 항아리이며, 일 반은 가장 큰 쌀독 위에 올린다고 한다. 제주도는 水稻耕作이 거의 아니되므로 백미의 큰 독은 있을 수가 없다. 이 안칠성에 대한 고사가 蛇神에게 하는 것이라는 짐을 아는 이는 그다지 많지 못한 듯하며, 그저 조상 때부터 해오는 관습이라서 한다는 이가 많다. 제주도에서는 어디서나 제사나 차례 때에 門神에게 門前祭를 지내고 조왕신에게 고사를 하는데, 이 안칠성에 대한 고사도 門神이나 조왕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蛇神 안칠성신앙이 하도 오래 전승되어온 것이므로 거의 본뜻이 잊혀지고 관습화되어 버린 것이다.

밧칠성의 신앙은 안칠성에 비해 드물다. 없는 마을이 많고, 있다고 해도 한 마을에 몇 집이 되지 않는다. 밧칠성이 있는 집은 뒤꼍 장독대 옆이나 굴나무 아래 등 정결한 곳에 모신다. 보통 기와장을 밑에 깔고 그 위에 五穀의 씨를 종이에 싸서 놓아 기와를 덮은 후, 빗물이 들지 않게 주쟁이(주저리)를 덮어씌워 모신다. 이것을 '칠성놀이'라 한다. 논이 있는 마을에선 볍씨를 놓기도 하지만, 거의 논이 없는 마을들이므로, 밭벼, 조, 보리, 메밀, 콩 등을 넣는데, 마을에 따라서는 반드시 五穀이 아니라 집에서 경작하는 곡식 씨는 모두 넣는다는 곳도 있다. 매해 정월달에는 택일을 하여 칠갈이라는 新年祭를 심방에게 의뢰하여 행하고, 이때 칠성놀이 오곡씨를 갈아놓고 주쟁이도 갈아 덮는다. 오곡씨를 갈아놓을 때 먼저 놓았던 씨가 썩지 않았으면 풍년이 들고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豫兆도 있다. 요새는 때가 귀하게 되어 주쟁이를 만들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아예 시멘트로 상자처럼 만들어 뚜껑을 덮어 모시는 집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밧칠성은 칠성놀이 있어서 그런지 蛇神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고, 남에게 숨기려는 의식이 있다. 신앙담을 몇 개만 보기로 한다.

본래 고향은 중문면 도순리 사람(이름 잊음)인데, 처가가 서귀포이니, 처가 쪽 마을에 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뱀 떼가 나타나는데, 보니 울타리 담구멍마다 뱀 대가리가 비죽거리고, <눌굽>의 담 밑마다 뱀이 대가리를 들고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수가 하도 많아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구경하러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칠성으로 모셔 위해야 한다고들 했다. 주인은 할 수 없이 얼른 심방에게 연락하고, 제물을 차려 굿을 하고, 밧칠성으로 모신다고 하여 칠성놀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뱀들이 일시에 다 칠성놀 속으로 슬슬 들어가 아니 나타났다고 하더라.

— <1968. 3. 23. 제주시 용담2동에서 현익철(남·53) 談, 필자 조사> —

우리 집엔 밧칠성을 모신 <칠성놀>이 있다. 조상 때부터 모셔온 것이라 부술 수는 없고 내버리지만, 처가 굿을 하며 위하는 것은 못마땅하여 함시 반대해 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아이가 갑자기 아팠다. 약을 써 봐도 낫지 않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하는 것이 돈은 근 200만원이나 들어도 병이 낫지 않았다. "이젠 아이는 버린 것이다"고 낙심하고, 마지막으로 심방에게 물어 보기로 하였다. 심방은 점을 치더니, "칠성의 조화로 병이 난 것이니, 칠성을 위하라."고 하였다.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심방 말대로 굿이나 하자고 하여 굿을 하였다. 심방은 굿을 하여 칠성놀을 옮겨 모시려고 하여 칠성놀의 <주쟁이>를 걸어 보니, <주쟁이> 밑의 기와장이 산산 조각이 나 부서져 있었다. 이것은 사라호 태풍 때 울타리 담이 무너져 부서진 것을 모르고 그냥 둔 것이다. 이렇게 굿을 하여 <칠성놀>을 잘 고쳐 모신 후, 아이의 병은 신기하게도 나아 아주 건강해졌다. 그래서 그 후부터 처가 하겠다는 대로 굿을 해도 복인하여 내버리고 있다. 미신이라고 강하게 우길 것은 아니다.

— <1962. 8. 12. 조천면 함덕리, 안하운(남) 談, 필자 조사> —

약 10년 전 애월에 강씨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를 베러 밭에 가는 길에 뱀을 만났다. 할머니는 뱀에게 "나에게 이로움을 주려거든 치마 위로 올라오라"고 말하며 치마폭을 펼치자, 뱀이 치마 위로 올라왔다. 할머니는 그 뱀을 치마폭에 담고 집으로 와 자기 집 뒤뜰에 모셨다. 그 후부터 강씨 할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모두 순조롭게 잘되어 부자가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집 주위에는 뱀이 나돌아 다녔다고 한다.⁴⁵⁾

45) 이관숙,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2)」, 『濟大社會科教育』 4,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1986, p. 106.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었던 일이다. 소위 집 지키는 뱀이라 일컬어지는 구렁이가 집안을 자꾸 드나들므로 20살 정도 된 그 집의 아들이 그 뱀을 잡아 죽이고 깡통 속에 넣어 버렸다. 그런데 그 후 며칠 뒤부터 그 아들은 시름 시름 앓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그 아들은 뱀의 형상처럼 몸을 S자로 비틀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심하게 앓다가 죽었다. 아들이 죽어갈 즈음에 어머니가 집 안 청소를 하다가 담벼락 밑에 놓여 있는 웬 깡통을 발견하고 열어 보니 거기에는 뱀이 가시만 앙상한 채로 죽어 있었다 한다.⁴⁶⁾

약 8년 전 하귀리에 사는 김씨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큰 구렁이를 발견하고 때려 죽여 남몰래 냇가에 버렸다. 며칠 후, 이 마을 청년이 지나다 이 죽은 뱀을 보고 놀라서 병이 들었다. 청년의 부모는 점을 쳐 보니 죽은 뱀의 동티가 옳은 것이라고 하였다. 청년은 병원에 다녔음은 물론 굶도 하고 온 정성을 다 했으나 끝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그 뱀을 죽인 할아버지는 죽은 청년의 집안 사람들로 부터 원망을 받았다고 한다.⁴⁷⁾

많은 例話를 들 겨를이 없지만, 이 이야기들을 보면 뱀칠성은 五穀을 神體로 하여 모시며 다만 그 신이 뱀이라고 관념만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뱀을 모신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모시면 부자가 된다는 것, 그 뱀칠성은 남자들도 완전히 미신이라고 배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뱀은 죽여서는 아니 되며, 죽이면 죽인 사람이 병이 들어서 뱀 모양으로 몸을 비틀며 죽어가거나, 직성이 약한 사람이 보아 병이 들어 죽는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뱀을 죽여서 앓은 병은 <칠성새남>이라는 큰굿을 해야 낫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굿은 뱀을 죽인 자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 허맹이라는 자임을 규명해내고, 그 허맹이를 귀양보내 버린 후, 뱀을 다시 재생시키는 모티프로 되어 있다. 뱀은 일곱 번 죽어도 여덟 번 살아난다고 생각되고 있다.⁴⁸⁾

2) 特性 綜合

이상 논의해 온 바를 종합 정리하기로 한다.

(1) 제주도의 蛇神은 조상신으로서의 蛇神, 堂神으로서의 蛇神, 一般神으로서의 蛇神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3종의 蛇神은 一家 내지 一族의 수호신,

46) 나정희,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1)」, 『濟大社會科教育』 3, 1985, p. 145.

47) 이관숙, 「濟州島 民間信仰 調査(2)」, 『濟大社會科教育』 4, 1986, p. 106.

48) 현용준, 위 「事典」, pp. 490~499.

부락의 수호신, 도민 일반적 수호신으로 그 신앙 범위가 다를 뿐, 신의 성격에는 특징적 차이가 없다. 조상신으로서의 蛇神은 穀神 내지 富神의 성격이 표면에 드러나 있으나, 농경사회에서 곡식의 풍요는 곧 豊農에 달려 있으므로 근원적으로 豊農神이라는 데로 귀결되고, 당신으로서의 蛇神은 특히 토산 여드렛당신과 같이 災殃神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 있으나, 그 儀禮方法을 분석하여 보면 뱀을 용과 동일시하고 있고, 高山의 遮歸堂神과 같이 신이 뱀이라고 하면서 神名을 龍神이라 부르고 있어 이 신앙이 龍蛇信仰임을 알게 한다. 그래서 災殃神의 성격은 제주도 巫神의 공통된 성격임을 감안하면 이 성격은 그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강조이고, 본래적 성격은 豊農神이라는 데로 귀결된다. 일반신으로서의 蛇神 칠성은 현재 穀神 안칠성과 富神 밧칠성으로 나누어져 신앙되고 있으나, 이것도 본원적으로는 豊農神에서 분화된 양면의 성격이며, 과거 官廳神, 水神 등으로도 다양하게 숭배되어 왔는데, 이것들이 모두 뱀을 용과 동일시한 龍蛇信仰에 그 연유가 있는 것이다.

(2) 제주도의 蛇神信仰은 본원적으로 하나의 같은 신앙이지만, 그것이 제주도에 들어온 것은 각각 시간차를 가지고 들어와 별개 성격의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가장 먼저 수입된 것은 일반신으로서의 蛇神 칠성이고, 그 다음에 高山의 遮歸堂 蛇神, 兎山 여드렛당 蛇神, 조상신으로서의 여러 蛇神 등속이다. 이 후대에 들어온 蛇神들이 각각 어느 시대에 들어왔는지 그 絶對年代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여러 蛇神信仰이 그 신화로 보아 朝鮮朝 때에 한국본토 남부지방과의 교류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신으로서의 蛇神 칠성은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인데, 그것은 제주도에 農耕이 시작될 당시거나 멀리 耽羅國時代의 일로 일반 민중이 豊農神으로 신앙했고, 그것이 통치자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豊農神으로 통치자들이 관청에서 모시던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耽羅國이 고려의 중앙집권제하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위하게 되었고, 儒敎理念의 통치국가인 朝鮮朝 시대에도 이를 배척하지 못하여 官廳神으로 모셔 온 것임을 지금의 관청할망당신을 보아 알 수 있다.

(3) 이 신들의 형체는 큰 뱀, 귀 달린 뱀, 황구렁이, 회색 뱀 등이라는 전승이 있어 본래 특수한 형체의 뱀을 용과 동일시하여 龍蛇信仰으로 神格視했던 것 같으나 점차 모든 뱀으로 의식하게 되어간 것이라 보인다.

(4) 이 蛇神들은 처음 조상신, 곧 一家 내지 一族의 수호신으로 숭배가 시작되어 그 信仰民이 확산되자, 마을 공동체의 신으로 堂神이 되고, 다시 그

신앙이 旣島에 번지자, 일반신으로 되는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蠃神이 수입된 시간차가 있으므로 늦게 들어온 것은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인 조상신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마을 공동체신인 堂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또 堂神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 집안의 조상신으로 위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을 보아도 이들 蠃神이 서로 각각 다른 성격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5) 이 蠃神들의 속성은 어느 蠃神이나 모셔서 위해 주도록 알리는 방법으로 질병 등 災殃을 주고, '잘먹으면 잘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큰곳 하면 큰 발 사고, 작은곳하면 작은 발 사는 신'으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신의 은혜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제주도 巫神 일반의 공통된 성격으로 蠃神만에 한정된 속성은 아니다. 단지 巫俗에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편의 하나에 지나지 않다. 또 이들 蠃은 죽이면 반드시 복수를 하여 그 죽인 사람이나 죽은 蠃의 시체를 본 사람이 병을 앓아 蠃의 모습을 하며 죽어가니 죽어서는 안되며, 만일 죽었을 경우에는 칠성새남이란 곳을 하여 죽은 蠃을 再生시키는 儀禮를 하여야 병이 낫는 것으로 되어 있다. 蠃은 일곱 번 죽었다가도 여덟 번 살아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승된다.

(6) 兎山 여드렛당신은 딸에서 딸로 母系繼承을 하는 것이라 하여 기피해야 할 신으로 일반이 인식하여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조상신이나 堂神들도 父系 또는 母系繼承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드렛당신만을 특히 강조하는 것은 편견이다. 父系繼承을 하는 조상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는 의식이 없고, 母系繼承을 한다는 이 堂神에만 이런 의식이 있다는 것은 이 신에게 災殃神的 성격을 강조하여 신앙을 강화한 데 기인한다. 칠성과 같은 蠃神은 하도 오래 전승되는 사이에 이런 부정적 속성이 잊혀져 버렸고, 兎山 여드렛당신은 뒤늦게 수입된 신이어서 특수한 異邦人의 신앙처럼 인식되어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된다.

(7) 모시는 장소와 방법은 조상신인 蠃神과 일반신인 칠성이 같다. 조상신인 蠃神은 고광(庫房)이나 뒤꼍에 모시는데, 칠성신도 고광과 뒤꼍에 모신다. 고광에 모시는 조상이나 안칠성은 崇祖祭인 제사나 명절의 茶禮 때에 祭物을 주부가 올려 고사 지내고, 집안에서 굿을 할 때 巫儀를 하여 위한다. 뒤꼍에 모시는 조상이나 밧칠성은 五穀의 씨를 기와 속에 넣어 주쟁이를 덮어 모시고, 1년에 한번 칠갈이라는 巫儀를 하여 五穀의 씨도 갈고 주쟁이도 갈아 덮

는다. 조상신으로서의 蛇神과 일반신으로서의 蛇神을 모시는 방법이 같다는 것은 그 신앙이 본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Ⅲ. 韓國本土의 뱀 信仰과의 比較

뱀을 신이라 하여 숭배하는 이 신앙이 제주도에만 있고 한국본토에는 없는가? 만일 한국본토에도 있다면 이들과 비교하여 고찰하는 것이 제주도의 이 신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본토에는 '집 지키는 뱀'이라는 '업'에 대한 信仰의 殘影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주도의 경우와 같이 穀類를 신체로 하여 단지에 담아 집 안이나 뒤뜰에 모시는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다. 이것들과 제주도 蛇神信仰의 關聯 有無를 비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업'의 실화와 신앙

업은 業主 또는 業位神, 司倉神 등이라 부르고 있는데, 家財와 家福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신은 창고, 노적가리, 지붕 등에 살고 있는 뱀, 족제비, 두꺼비 등의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뱀이다. 이 업이 있으면 집안이 부자가 되고, 업이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 지붕을 개조하거나 집의 건물을 개축할 때 뱀이 발견되면 결코 죽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이 업은 창고 또는 광의 위쪽 한 귀퉁이에 괄을 담은 옹기의 형식으로 모시기도 하고, 항아리에 쌀을 담아서 <업항아리>라고 하여 모시다가 하면 때로는 터줏가리처럼 짚으로 엮어서 모셔 두는 지역도 있다. 이 신에 대한 특별한 제의는 없고, 다만 고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쳐 모신다고 한다.⁴⁹⁾

이 업에 대한 신앙은 中部地方에는 비교적 선명하지만, 湖南, 嶺南地方에는 전무한 것은 아닌 듯한데 들을 수 없어 거의 사라져 버린 민속이라 보고하고

49)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경기도편, 문화재관리국, 1978, pp.87~92.

同 『報告書』, 서울편, 1979, p.7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92.

있다.⁵⁰ 그러나 업에 대한 설화들을 보면 嶺 湖南地方에도 이 신앙관념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업의 神的 성격을 더욱 소상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전승 설화를 몇 편 보기로 한다.

A <전라남도 신안군>

우리 집은 3대 지킨 집인데, 할아버지가 계실 때 집 뒤쪽에 큰 구렁이가 하나 살았다. 이 구렁이는 식구들 아무에게도 안 보이고, 할머니 눈에만 보였는데, 1년에 한번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 구렁이 구멍이 지금도 있다.

어느 여름 날 할아버지는 골패를 하러 나갔고,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할머니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구렁이에게 “너, 가자!” 하니, 구렁이가 “얼로 간다요?” 하고 물었다. 백발노인은 “저 왕제산으로 가자!”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잠을 깨어 벌떡 일어나 보니 뇌성벽력이 치며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다.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바깥을 보니 그 구렁이가 바깥으로 기어 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구렁이 뒤를 쫓아가 보니 구렁이는 왕제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간 후로는 항상 곡식이 안 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없었다.⁵¹

B <전라남도 승주군>

전에 경상도 합천에 이진사와 김진사가 살았다. 둘이는 동문수학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김진사는 부자로 잘살고, 이진사는 가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 김진사는 자주 이진사를 집에 불러 놓고 음식도 대접하곤 했다.

이진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니 장가를 보낼 수 없어 혼기가 늦어갔다. 어느 날 이진사가 김진사의 초청을 받아 김진사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열 여덟 살 쯤 된 김진사의 여종이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집 처마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 여종의 목에 걸려졌다. 여종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구렁이가 걸려진 채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부은 다음, 밖으로 나와 구렁이에게 “이러지 말고 너 갈 데로 가거라.” 하니, 구렁이는 스스로 내려와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여종의 차분함을 본 이진사는 “종이지만 저 정도면 며느리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김진사에게 다시 가서 청혼을 했다. 김진사는 “차마 종을 며느리로 데려가겠느냐?”고 난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좋다고 간청했다. 그러

5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라남도편, 문화재관리국, 1969, p. 260.
同 『報告書』, 경상북도편, 1974, p. 162.

51) 『韓國口碑文學大系』,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 455~457. 이하 「大系」로 줄임.

자, 김진사는 “번 데로 이사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며 허혼을 하고, 혼례를 치르자 논섬지거나 주었다. 이진사는 아들 혼례를 치르자, 번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 구렁이가 그 여종의 뒤를 따라왔다. 이 구렁이는 <업>인 것이다. 그래서 이진사네 집안은 날로 부자가 되고, 김진사네 집안은 점점 가난하여갔다. 그래서 김진사가 살기 어렵게 되자, 이진사는 재산을 반 나누어서 김진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두 집이 다 잘 살았다 한다.⁵²⁾

C <전라북도 진안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살기가 어려워 어떤 만석꾼의 부자집으로 도둑질을 하러 갔다. 나락 두 섬을 도둑질 하여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니 무엇이 뒤에서 잡아 당겼다. 뒤를 돌아다보니 하얀 영감이 어서 지고 가자고 하면서 이제부터 네 집에 한 3년 가 있겠다고 했다. 이 영감은 이 부자집의 업인데, 이 집 운이 다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나락을 저다가 사는데, 하루는 영감이 이 사람보고 光陽 땅 아무데 가면 성냥쟁이가 있으니 그 집에 가서 7백석 지기 논 문서를 써 달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 이 사람은 성냥쟁이를 찾아가 앙탈해서 7백석 지기 논 문서를 받아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7백석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만석꾼네 업은 그 성냥쟁이 집으로 가서 성냥쟁이는 9천 3백석 부자가 되었으며, 만석꾼은 업이 나갔기 때문에 폭삭 망하고 말았다.⁵³⁾

D <경상남도 양양군>

인곡당은 남평 문씨로 말곡리에서 만석꾼이 된 부자인데, 처음은 스님이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계절에 따라 벼, 쌀, 보리 등 곡식을 동냥질하여 살았다. 어느 날 보리 동냥질한 것을 자루에 담아 짊어지고 언덕을 넘어 오는데, 짐이 하도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다. 짐을 내려놓아 자루를 열어보니 의외에도 뱀이 한 마리 들어 있었다. 그대로 자루 주둥이를 묶어 매고 집에 와 풀어 놓으니, 뱀을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부터 동냥질을 나가면 돈과 쌀을 지꾸 주어 밤도 사고 논도 사고 하여 만석꾼 부자가 되었다.⁵⁴⁾

E <대구시>

어떤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만 부인이 죽었다. 장사를 치르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라도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하겠다고 하여 예식

52) 同 「大系」 6-4. 1985. pp.416~419.

5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라북도 편. 문화재관리국, 1971. p.611.

54) 위 「大系」 2-4. 1983. pp.464~465.

있다.⁵⁰⁾ 그러나 업에 대한 설화들을 보면 嶺 湖南地方에도 이 신앙관념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업의 神的 성격을 더욱 소상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전승 설화를 몇 편 보기로 한다.

A <전라남도 신안군>

우리 집은 3대 지킨 집인데, 할아버지가 계실 때 집 뒤곶에 큰 구렁이가 하나 살았다. 이 구렁이는 식구들 아무에게도 안 보이고, 할머니 눈에만 보였는데, 1년에 한번밖에 나오질 않았다. 그 구렁이 구멍이 지금도 있다.

어느 여름 날 할아버지는 골패를 하러 나갔고,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할머니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구렁이에게 “너, 가자!” 하니, 구렁이가 “얼로 간다요?” 하고 물었다. 백발노인은 “저 왕제산으로 가자!” 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잠을 깨어 벌떡 일어나 보니 뇌성벽력이 치며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다.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바깥을 보니 그 구렁이가 바깥으로 기어 나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구렁이 뒤를 쫓아가 보니 구렁이는 왕제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구렁이가 나간 후로는 항상 곡식이 안 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없었다.⁵¹⁾

B <전라남도 승주군>

전에 경상도 합천에 이진사와 김진사가 살았다. 둘이는 동문수학하여 진사가 되었는데, 김진사는 부자로 잘살고, 이진사는 가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아 김진사는 자주 이진사를 집에 불러 놀고 음식도 대접하곤 했다.

이진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집이 가난하니 장가를 보낼 수 없어 혼기가 늦어갔다. 어느 날 이진사가 김진사의 초청을 받아 김진사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열 여덟 살 쯤 된 김진사의 여종이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집 처마에서 큰 구렁이가 나와 여종의 목에 걸쳐졌다. 여종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구렁이가 걸쳐진 채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부은 다음, 밖으로 나와 구렁이에게 “이러지 말고 너 갈 데로 가거라.” 하니, 구렁이는 스스로 내려와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여종의 차분함을 본 이진사는 “종이지만 저 정도면 며느리로 삼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김진사에게 다시 가서 청혼을 했다. 김진사는 “차마 종을 며느리로 데려가겠느냐?”고 난색을 보였지만, 그래도 좋다고 간청했다. 그러

50)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라남도편, 문화재관리국, 1969, p. 260.
同 『報告書』, 경상북도편, 1974, p. 162.

51) 『韓國口碑文學大系』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 455~457. 이하 「大系」로 줄임.

자, 김진사는 “먼 데로 이사 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며 허혼을 하고, 혼례를 치르자 논섬지거나 주었다. 이진사는 아들 혼례를 치르자, 먼 데로 이사를 갔는데, 이 구렁이가 그 여종의 뒤를 따라왔다. 이 구렁이는 <업>인 것이다. 그래서 이진사네 집안은 날로 부자가 되고, 김진사네 집안은 점점 가난하여갔다. 그래서 김진사가 살기 어렵게 되자, 이진사는 재산을 반 나누어서 김진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두 집이 다 잘 살았다 한다.⁵²⁾

C <전라북도 진안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어떤 반석꾼의 부자집으로도독질을 하러 갔다. 나락 두 섬을 도독질 하여 짊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니 무엇이 뒤에서 잡아 당겼다. 뒤를 돌아다보니 하얀 영감이 어서 지고 가고 하면서 이제부터 네 집에 한 3년 가 있겠다고 했다. 이 영감은 이 부자집의 업인데, 이 집 운이 다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은 그 나락을 저다가 사는데, 하루는 영감이 이 사람보고 光陽 땅 아무데 가면 성냥쟁이가 있으니 그 집에 가서 7백석 지기 논 문서를 써 달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는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 이 사람은 성냥쟁이를 찾아가 앙탈해서 7백석 지기 논 문서를 받아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7백석 부자가 되었다. 그 후 반석꾼네 업은 그 성냥쟁이 집으로 가서 성냥쟁이는 9천 3백석 부자가 되었으며, 반석꾼은 업이 나갔기 때문에 폭삭 망하고 말았다.⁵³⁾

D <경상남도 양양군>

인곡당은 남평 문씨로 말곡리에서 반석꾼이 된 부자인데, 처음은 스님이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계절에 따라 벼, 쌀, 보리 등 곡식을 동냥질하여 살았다. 어느 날 보리 동냥질한 것을 자루에 담아 짊어지고 언덕을 넘어 오는데, 짐이 하도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다. 짐을 내려놓아 자루를 열어보니 의외에도 뱀이 한 마리 들어 있었다. 그대로 자루 주둥이를 묶어 매고 집에 와 풀어 놓으니, 뱀을 마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부터 동냥질을 나가면 돈과 쌀을 지꾸 주어 밭도 사고 논도 사고 하여 반석꾼 부자가 되었다.⁵⁴⁾

E <대구시>

어떤 부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만 부인이 죽었다. 장사를 치르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이라도 빨리 장가를 보내야 하겠다고 하여 예식

52) 同 『大系』 6-4, 1985, pp. 416~419.

53)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라북도 편, 문화재관리국, 1971, p. 611.

54) 위 『大系』 2-4, 1983, pp. 464~465.

을 올렸다. 땅은 여남은 마지기밖에 없는 집에서 장사 치르고 아들 장가 보내고 하니 쌀은 얼마 안 남았는데,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 밥상에 반찬을 잘 차려 올려 해 뜨게 썼다. 거기다 시아버지 생일이 돌아오니 잘 차린다고 떡 쌀 술쌀 하다 보니 밥할 쌀이 없었다. 새 며느리는 남편을 시켜 큰집에 가서 나락을 두 섬만 얻어 오라고 했다. 남편이 가서 말을 하니, 큰집에서는 쥐 까 먹은 나락을 위로 길어 두 섬을 주었다. 며느리는 다시 남편에게 자루를 하나 가져 산 밑에 가면 구렁이가 있으니 그 구렁이를 주워 담아 오라고 했다. 뱀을 자루에 담아 오니 며느리는 큰집에서 얻어 온 나락섬에 뱀을 넣어 뚜껑을 덮어 놓고, 큰집 아이들을 오게 했다. 큰집 아이들이 오고 보니, 며느리는 나락섬의 뱀을 뚜껑을 열어 보아 얼른 덮고, 다시 보아 얼른 덮고 하고 있었다. 이 일을 집에 가서 말하니, 큰집에서는 얻어 나락섬에 물어 나갔다고 하여 얼른 가서 그 나락을 다른 나락 열 섬하고 바꾸자고 하였으나 거절하므로 논 열 마지기 문서하고 바꾸자고 하여 바꾸었다. 며느리는 큰 집에서 받은 논 열 마지기하고 자기네 논 열 마지기하고 스무 마지기를 갈아 부자가 된 후, 큰집의 논 문서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큰집도 부자가 되고 자기네도 부자가 되어 잘 살더라 한다.⁵⁵

F 〈강원도 영월군〉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실화이다. 영월의 병법이라는 데에 경상도 어디선가 잘사는 집안에서 여자가 시집을 왔다. 시집을 오고 보니 끼니도 잇지 못할 정도로 시집이 몹시 가난했다. 어느 날 친정엘 가게 되니 못사는 형편이지만 떡을 하고 찾아갔다. 친정에서는 쟁지 않은 벼를 서 말 주어 노비를 시켜 지워 보냈는데, 도중 벼 서 말이 몹시 무거워서 속을 들여다보니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다. "이게 업이로구나." 하여 지고 와서 독 속에 잘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니 날로 재산이 늘어나 굉장히 잘 살았다. 그런데, 망할 무렵이 되니 그 업이 없어지고, 그 후부터 재산이 줄기 시작했다. 바로 우리 집안 이야기다.⁵⁶

全羅道, 慶尚道, 江原道の 전승 설화를 들었는데, 이만한 例話만 보아도 업에 대한 신앙의식이 이들 각 도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 보아 현재 이들 지역에 업을 모시는 실례는 보기 어렵다 해도 업에 대한 신앙은 전국 분포였음을 알 수 있다. 업의 형체는 C설화처럼 하얀 영감으로 인격화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거의 구렁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뱀이 집에 있을 때는 부자가 되고, 나가 버리면 가난해진다고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A설화에

55) 위 「大系」 7-13, 1985, pp. 279~283.

56) 위 「大系」 2-9, 1986, pp. 825~826.

서는 구렁이가 나간 후로 “곡식이 안되었다”고 하는 데서 穀神, 豊農神의 성격의 신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B설화에서는 여종의 뒤에 구렁이가 따라갔다는 점, F설화에서는 친정의 구렁이 업이 딸에게 따라갔다는 점을 보아 업이 여성에게 따라간다는 관념이 있음도 알 수가 있다. D와 E설화에서는 쌀이나 나락섬에 묻어 따라온다는 관념을 읽을 수 있고, F설화에서는 업을 독속에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쌀독에 모신다는 점도 알 수 있게 한다. 이상의 여러 점은 제주도의 조상신으로서의 蛇神이나 일반신인 칠성과 유사하니 그것을 도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	제주도의 蛇神 - 조상신과 칠성	한국본토의 업
신의 성격	穀神, 富神, 豊農神 (집에 있으면 富, 나가면 가난)	財物神, 司倉神이라 하고, 豊農神의 성격이 있으나 결국 같은 성격임
신의 형태	뱀	뱀
모시는 장소	고광(광)의 쌀독, 또는 뒤곶의 주쟁이(주저리) 밭.	창고, 광 등의 쌀독, 또는 터숫가리 같은 주저리 밭
致祭方法	제사, 명절 때 쌀독 위에 제물 올림(주부가 담당). 또는 정월에 巫儀를 하여 주쟁이를 갈아덧음. 큰굿도 함.	고사 지낼 때 제물을 올림(주부가 담당). 주저리를 갈아덧음.
신앙 계승	아들 또는 딸에게 계승됨. 곡식 등에 묻어 다른 사람에게도 따라감.	아들에게 계승되나 딸에게도 따라 간다는 관념이 있고, 쌀, 벼에 묻어 옮겨 감.
신앙 태도	뱀을 죽이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음. 뱀을 죽이면 병을 앓음.	뱀을 죽이거나 집 밖으로 쫓아내지 않음.

이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蛇神信仰이 제주도에만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본토의 업신앙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본토에는 그 신앙이 민간 차원의 신앙에 머물러 전승되다가 오늘날 거의 사라져가는 단계인 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뿐 아니라 멀리 耽羅國時代부터 官次元에서 豊農神으로 숭배할 만큼 성행하였고, 오늘날도 민간생활에 생생히 살아남아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蛇神信仰은 조상신으로, 당신으로, 일반신으로 신앙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성격의 신을 一家 내지 一族, 마을 공동체, 全島 단위로 신앙하는,

신앙 범위의 차이임을 위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일반신으로서의 甁神은 현재 안칠성과 밧칠성으로 분화되어 모셔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본토의 甁神信仰과 비교하여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본토의 소위 터줏가리, 조상단지 등속의 신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터줏가리, 조상단지 등의 신앙

전술한 바 있듯이 제주의 안칠성은 고팡(庫房)에 있는 것으로 관념하여 제사, 명절 때 등에 쌀독 위에 제물을 올려 위하고, 밧칠성은 뒤꼍에 기와 속에 五穀을 놓고 빗물이 들지 않도록 주쟁이(주저리)를 덮어 모시는 것이다. 이 五穀은 매해 정월에 '철갈이'라는 巫儀를 하여 새것으로 갈고, 주쟁이도 갈아 덮는다. 결국 집 안에 모시는 것은 쌀독에, 집 바깥에 모시는 것은 뒤꼍에 穀類를 神體로 하여 모신다고 요약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시는 것을 한국본토에서 찾으면 집 안에 모시는 것에 조상단지, 세존(世尊)단지, 제석가오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집 바깥에 모시는 것에 터줏가리, 용단지, 철룽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집 안에 모시는 것부터 보면 조상단지는 통칭이고, 세존단지는 영남지방의 명칭이며, 제석가오리는 호남지방의 명칭이다. 안방이나 마루방 등의 선반 위에 모시는 것이 일반인데, 어느 것이나 조상의 영혼이 담긴 것으로 여기고 모시는 단지나 항아리이다. 그 안에는 매해 추수 때마다 햅쌀을 갈아 담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보리찰에 보리를 갈아 담기도 한다. 이 단지에는 제사, 명절 때 등에 주부가 제물을 올려 위한다고 한다.⁵⁷⁾ 張壽根은 이 단지를 '조상할매'라 부르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여성관념이 강한 편이라 하고, 女神崇拜, 祖靈崇拜, 그리고 곡식을 祖靈의 상징물로 숭상하는 穀靈崇拜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라 했다.⁵⁸⁾ 이 조상단지가 고대적 조상숭배의 잔영이라 한다면 조상은 남녀가 있을 터인데, 왜 '조상할매'라 하여 女神으로 관념하는가 하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 의문에 대하여 張壽根은 "이 優位 女神은 農耕豐饒祈願 對象神의 原初型임에 틀림없다."고 했다.⁵⁹⁾ 여성의 생산력은 곧 풍요와 연관되고, 이와 관련하여 곡모신으로 신앙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57)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각도편, 家庭信仰 章 참조.

58) 장주근, 「조상단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pp. 366~367.

59) 張壽根, 「民間信仰」, 『韓國民俗學概說』, 민중서관, 1974, p. 164.

뱀이 풍농신이나 부신으로 신앙된다면 또한 여성으로 관념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곧 이 조상단지 숭배가 순수 祖靈崇拜가 아니라 豐農神崇拜도 된다는 말이 된다. 그렇게 보면 이 조상단지 숭배는 그 모시는 방법이 제주도의 안칠성이나 조상신으로서의 蛇神崇拜의 방식과 서로 통할 뿐 아니라 穀神 내지 豐農神崇拜라는 신앙의 내용도 같은 점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본토의 것은 蛇神이라는 관념이 없는 점이 다르고, 제주도에서는 蛇神이라 관념하면서도 이를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점이 한국본토의 것과 통한다. 생각컨대, 제주도의 안칠성이나 조상신으로서의 蛇神崇拜가 한국본토의 조상단지 숭배와 본원적으로 통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의 경우 蛇神觀念이 나중에 조상숭배에 결부된 것인지, 아니면 豐農神崇拜 내지 穀靈崇拜가 본래 蛇神觀念과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 한국본토에서 잊혀져 사라져 버린 것인지, 현 단계로서는 무어라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마 후자가 아닌가 추정해 두고 싶다.

다음, 집 바깥에 모시는 것들을 보면, 터줏가리는 집터를 지켜 주는 家神으로 생각하여 집의 뒤꼍이나 장독대 가까이에 쌀을 항아리나 단지에 담아서 神體로 삼고, 짚가리를 덮어 빗물이 들지 않게 하여 모신 것이다. 쌀은 매해 햅쌀로 갈아 넣는데, 그냥 갈아 넣기도 하지만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행하기도 한다. 이 터줏가리에는 매년 행하는 고사나 굿이 있을 때 모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평소에도 간단한 치성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⁶⁰ 이 터줏가리의 神을 '터주' '터주대감'이라 하는데, 이 터주신앙도 중부지방에는 선명하지만, 嶺·湖南地方으로 오면 호지부지 자취를 감추어 '龍단지' '철룽'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龍단지는 경상북도에 있는 것으로 뒤꼍이나 庫房 다락 등에 모시며 가을에는 쌀, 봄에는 보리쌀을 갈아 넣는다. 용은 물과 비와 관련이 있어서 농사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한다.⁶¹ 철룽은 충청북도로부터 호남지방에 터주 대신 나타나는 것으로 충청북도 永同郡에서는 '청룡단지'라 부르고, 珍島에서는 '철룽할마이'라 한다. 이것은 뒤꼍에 쌀과 종이를 단지나 항아리에 담아서 파 묻고 짚주저리를 덮어 모신 것이다. 설, 정월 보름, 추석 등에 빌고, 이사 갈 때 파 들고 간다고 한다.⁶² 이들 터줏가리, 용단지, 철룽들은 그

60) 최길성, 「터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p. 92.

61)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상북도 편, 1974, p. 161.

62) 장주근, 「家庭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전라남도 편, 1969, p. 261.

모시는 장소나 방법에 있어 제주도의 밭칠성과 유사성이 있다. 한국본토의 쌀 향아리나 단지가 제주에서는 기와장을 깔고 五穀을 넣어 기와장을 덮는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상북도의 용단지의 '龍'이나 충청북도 영동의 '청룡', 珍島의 칠룡할마이의 '칠룡' 등이 龍蛇信仰과 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며, 만일 그렇게 보는 것이 허용된다면 이것들은 제주도의 밭칠성과 더욱 가까워짐을 느끼게 한다. 張壽根은 龍단지를 업계통으로 보는 데는 의문을 남기면서 업과 같이 기술하고 있고, 칠룡류는 터주류로 보아 논의하고 있다.⁶³⁾ 한국본토의 이들 神觀念이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고, 이 신들이 '업'과의 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은 현단계에서는 어떻다고 명백한 단언을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업과 터주류, 조상단지류 등 여러 가정신앙의 상호 관계가 더 연구 해명되어야 밝혀질 일이다. 그러면서도 제주도의 蛇神信仰이 고대로 올라가면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본토의 蛇神信仰과 동일한 것이었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본래 龍蛇信仰인 豐農神信仰으로서 한국본토에서는 民間信仰으로 전승되다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일찍이 통치권자인 官의 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 전승되어왔고, 그것이 一家 내지 一族次元, 部落共同體次元, 全島民次元의 신앙으로 확산되면서 穀神, 富神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어 현재도 민간생활 속에 생생히 살아 남아 있다는 특성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처럼 個人, 部落, 全島 차원으로 信仰層位가 다양한 것과 아직껏 생생한 전승양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제주도의 蛇神信仰은 한국본토의 蛇神信仰과 커다란 差別性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 蛇神信仰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제주도의 문화를 특징지워 주는 신앙의 하나라 할 것이다.

63) 張壽根, 「家神信仰」, 『韓國民俗大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pp. 104~111.

IV. 濟州島民의 뱀 信仰 意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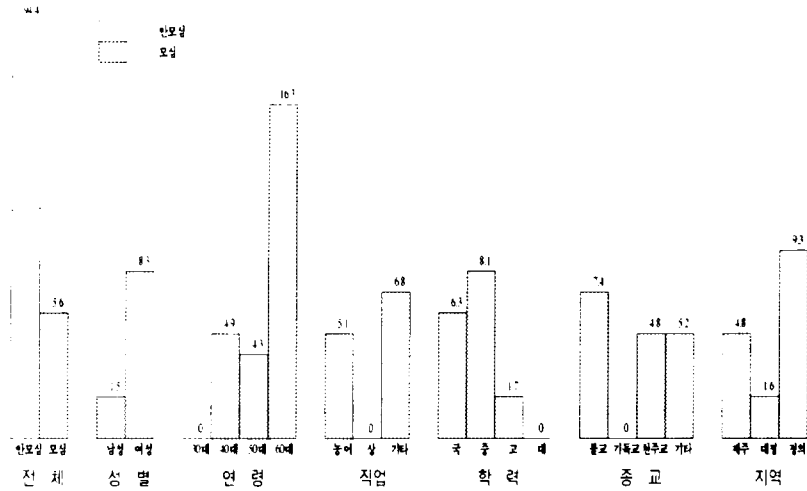
제주도민의 뱀신앙 의식 조사에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회수된 것은 300여 매로, 선택형 문항 20개와 기입형 문항 6개가 제시되었고,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지역 등 6개 변수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조선시대의 행정 구역인 濟州, 大靜, 旌義를 따랐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뱀신앙 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보편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전체적인 평균치와 이들 변수에 따른 의식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PC를 이용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검증을 실시한 이유는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라 뱀 신앙의 실태와 의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고 이를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6개의 변수를 모두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도 통계에 활용하되, 단 지역변수 만큼은 정확히 응답한 것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변수의 선택항별 응답자 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전체적인 응답비율은 지역변수의 것을 따랐다.

1. 일월조상

1. 일월조상을 모시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94.4%가 모시고 있지 않거나 모른다고 응답했다. 모시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성별로 보면, 남성 응답자의 1.5%, 여성 응답자의 8.3%가 해당되어,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시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는 한 사람도 모시는 경우가 없었으며, 4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종교의 경우 대부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천주교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지역별로는 정의(3.0%) - 제주(2.4%) - 대정(0.3%) 순으로 대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을 보여준다. 직업, 학력에 따른 통계수치는 유의도가 낮는데, 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 중에는 일월조상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일월조상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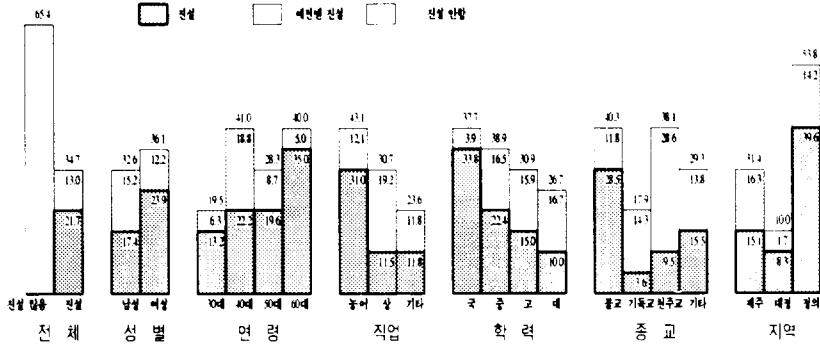
※ 전체는 설문대상자 : 응답자 비율, 나머지는 변수별집단 : 응답 비율임. (단위 : %)

1-1. '일월조상을 어디에 어떻게 모시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률이 매우 낮았으며, 부엌 (1), 고팡 (2), 집뒤 (2), 집뒤 작은 창고안 (1), 마루 (1), 집 밖 칠성놀 (1) 등으로 다양한 답이 나왔다(단위 : 명, 복수응답).

II 안 칠 성

2. '고팡에 제물 진설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21.7%가 제물을 진설한다고 했는데, 13.0%는 예전에 제물을 진설했었다고 하니, 34.7%가 제물을 진설했었거나 진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월조상을 모시고 있다는 응답자가 5.6%에 불과한 것과 비교가 된다. 남성 응답자의 17.4%, 여성 응답자의 23.9%로 여성 응답자가 많은 것은 제물 진설을 통상 여성이 맡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변수에 따른 통계치는 문항 1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30대 이하의 13.2%가 제물을 진설한다고 해서 1번 문항에 일월조상을 모시는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고광 제물 진설여부]



※ 전체는 설문대상자 : 응답자 비율, 나머지는 변수별집단 : 응답 비율임. (단위 : %)

위 그래프에서 예전에 진설했었다는 응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대의 18.8%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른 연령층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비율이다. 이는 이들 세대에 이르러 안찰성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상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19.2%, 중학 이상 학력자의 약 16.4%, 기독교 신자의 14.3%, 천주교 신자의 28.6%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농업을 포기하면서, 학력을 쌓으면서, 신앙을 바꾸면서 안찰성에 대한 신앙을 버린 예가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대정 지역에서는 안찰성을 모시는 예가 극히 드문 반면, 제주 지역은 15.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나 16.3%가 이미 진설을 포기하고 있어 심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의 지역은 안찰성 신앙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치(39.6%)를 나타내고 있는데, 14.2%가 그 신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변화의 물결이 이곳에도 심하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광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안찰성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3.6%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안찰성을 모시고 있지는 않더라도 안찰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6.5%) - 50대(70.4%) - 40대(61.7%) - 30대이하(25.0%) 순으로 나타난다. 이로 보아 3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부터 급격히 안찰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농어업 종사자의 74.4%-상업종사자의 37.5% - 기타의 39.1%로 나타나 농어업 종사자와 다른 직종 종사자의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역별로는 제주 52.7% - 대정 57.1% - 정의 75.0%로 정의지역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대정지역이 제주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된다. 안칠성을 모시거나 효험을 믿는 정도는 제주지역보다 뒤지는 것과 비교해 불만 하다.

4. 고평에 제물을 올리는 것이 효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30.6%에 불과한데, 대부분인 69.4%의 응답자는 효험을 믿지 않고 있고 있다. 그런데 효험을 믿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따로 보면, 60대 이상(41.2%) - 50대(32.0%) - 40대(25.9%) - 30대 이하(0%)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 수록 그 효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30대 이하인 경우는 전혀 믿지 않고 있다. 대정지역 사람중에는 그 효험을 믿는 경우가 전혀 없는 반면, 제주 37.8%, 정의 27.8%로 제주사람들이 정의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효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5. 안칠성의 직능에 대해서는 13.5%가 부신, 19.2%가 가내수호신, 7.9%가 부신 겸 가내수호신으로 알고 있다. 한편, 59.4%에 이르는 응답자가 안칠성의 직능을 모르고 있다. 직능을 모른다고 한 응답만 따로 보면, 남성의 54.7%, 여성의 46.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55.6%) - 40대(50.7%) - 50대(51.7%) - 60대 이상(36.8%) 순으로 연령이 적을 수록 많고, 60대 이상과 그 이하의 응답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제주(54.3%), 대정(52.5%)은 비슷한 응답을 했으나 정의는 40.0%로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

6. 안칠성이 본래 뱀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여서 역시 주목을 요한다. 또한 지역별로 볼 때 정의(11.3%) - 제주(27.3%) - 대정(28.3%) 순으로 정의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응답률을 보인 점도 주목된다. 안칠성을 많이 모시고, 직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칠성이 본래 뱀이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몰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뱀신앙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숨기려는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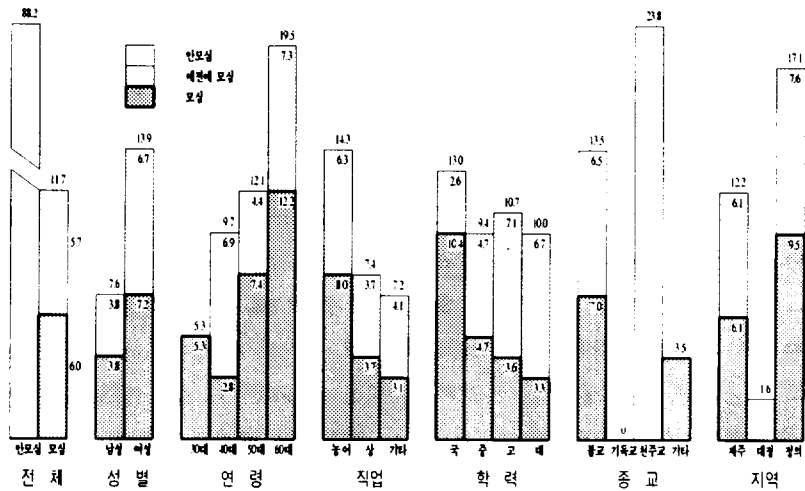
II-2. 안칠성은 어떤 종류의, 어떻게 생긴 뱀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부군(1), 보통 뱀(5), 구렁이(18), 뱀 아님(1)으로 응답해 구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귀 달렸다(7), 크다(5), 누렁다(4), 보통이다(2), 검다(1), 붉다(1),

몸에 칠성무늬가 있다(2) 등으로 응답해 귀가 달리고, 일반적으로 크고 누런 색을 띤 구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단위 : 명, 복수응답).

III. **뱃칠성**

7. 칠성놀을 모시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6.0%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5.7%가 예전에 모시다가 없애 버렸다고 응답했다. 모신 경험있는 사람이 전체의 11.7%로 안칠성의 34.7%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머지 88.2%가 예전부터 없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정지역에서는 모신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점이 주목된다. 30대 이하에서는 안칠성을 모시는 경우가 없었는데, 뱃칠성의 경우에는 5.3%가 모시고 있는 것은 안칠성과 뱃칠성에 대한 신앙실태가 사뭇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려준다. 직업별로는 농.어업(8.0%) - 상업(3.7%) - 기타(3.1%) 순, 학력별로는 저학력 - 고학력(국10.4%, 중4.7%, 고3.6%, 대3.3%)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의 3.3%가 뱃칠성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칠성 신앙실태와 비교된다.

[칠성놀 유무]



※ 전체는 설문대상자 : 응답자 비율. 나머지는 변수별집단 : 응답 비율임. (단위 : %)

천주교 신자의 23.8%가 예전에 뱃칠성을 모셨으나 현재는 전혀 모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 신자는 과거나 현재 모신 적이 전혀 없다고 응

답했다.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를 믿으면서 뱃칠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대정 지역 주민의 1.6%도 예전에 모셨으나 현재는 전혀 모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자일 수록 예전에 모시던 것을 현재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40대, 60대 이상에서 포기한 사람이 많고, 제주(6.1%) - 정의(7.6%)가 포기한 이유는 주택개량, 새마을 운동 등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8. 칠성놀이를 모시는 사람 중에 칠성놀이에 제물을 차려 올린다는 사람은 전체의 31.4%, 전에는 올렸는데 지금은 안 올린다는 사람은 42.9%였다. 74.3%가 제물을 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물 차려 올리는 것이 주요 신앙방식임을 보여준다. 안칠성의 34.7%에 비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50.0%, 40대의 15.4%, 50대의 50.0%, 60대 이상의 16.7%가 제물을 올린다고 응답해서 30대 이하 응답자의 비율이 50.0%에 이르는 이외의 결과를 나타냈다.

9. 칠성놀이의 효험을 믿는 사람은 칠성놀이를 모시는 사람 전체의 41.4%, 믿지 않는 사람은 58.6%이다. 효험을 믿지 않으면서도 조상들이 하던 것이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많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령별로 볼 때 30대 이하의 100%, 40대의 11.1%, 50대의 33.3%, 60대 이상의 71.4%가 그 효험을 믿고 있다. 30대 이하의 응답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뱃칠성을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이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Ⅲ-1. 칠성놀이에 무엇을 놓느냐는 질문에는 쌀, 좁쌀, 팥 등 곡식을 놓는다. (5), 과일, 국, 밥, 고기, 떡 등 음식을 놓는다. (4), 쌀과 음식을 같이 놓는다 (1)는 응답이 있었으며 양초를 같이 놓는다(1)는 응답도 있었다. 어떻게 놓느냐는 질문에는 사기그릇을 덮어 놓는다(2), 쌀사발을 덮는다(1), 돌을 덮는다(5), 주춧이를 덮는다(4)고 응답했다. 이로부터 주로 곡식, 음식을 그릇이나 사기, 돌 등으로 덮은 뒤에 주춧이로 가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복수응답).

10. 칠성놀이를 누가 어떻게 갈아 덮는가에 대해서는 27.3%가 심방을 빌어 비념을 하고 갈아 덮는다. 9.1%가 제물을 차려 올리고 가장이 덮는다. 27.3%가 제물을 차려 올리고 주부가 갈아 덮는다고 응답해서 갈아 덮는다는 응답이 63.7%에 달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응답한 사람도 36.4%에 이른다. 남성 응답자는 가장(20.0%)이나 주부(20.0%)가 갈아 덮는다고 응답했고, 여성

응답자는 심방(37.5%)이나 주부(31.3%)가 갈아 덮는다고 응답해서 대조적인 응답 결과를 보인다. 또한 30대 이하 응답자는 모두 방치해 둔다고 응답했으며, 40대는 심방(40.0%)이나 가장(20.0%)이, 50대 이상은 심방(50대 12.5%, 60대 이상 50.0%)이나 주부(50대 50.0%, 60대 이상 16.7%)가 갈아 덮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특이하게도 제주 지역에서 만큼은 가장이 갈아 덮는 경우는 없었다. 30대 이하인 경우 칠성놀의 효험을 믿으며 모시기는 하지만, 그 모시는 방법은 잘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갈아 덮는가에 대해서는 1월(9), 10월(2), 11월(1), 12월(1), 3월(1), 1~3월중(1), 날 보아서(1)로 응답했다(단위:명). 1월에 갈아 덮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10월~3월로 그 시기가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칠성신앙에 관한 한 남성보다 여성이, 저연령층보다 고연령층이 옛 전통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본래 칠성놀은 정월에 심방을 빌어 비를 하고 갈아 덮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점차 그 시기가 다양해지고 또한 주부가 갈아 덮는 경우가 많아 지게 되었으며, 가장이 갈아 덮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예 갈아 덮지 않고 방치해 두는 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있으며, 이로 보아 칠성신앙의 변모양상을 잘 알 수 있다.

11. 칠성놀에 모신 신이 밭칠성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7.0%로 칠성놀을 모시고 있거나 예전에 모셨었다는 11.7%보다 훨씬 많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고평에 제물을 올리는 것이 안칠성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3.6%에 이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12. 칠성놀에 모신 신의 직능에 대해서는 전체의 2.3%가 집안을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 14.7%가 집안을 지켜서 편안하게 해주는 신, 22.4%가 집안을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신으로 알고 있다. 칠성놀에 모신 신이 밭칠성임을 모르고는 있어도 그 직능에 대해서는 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셈이지만, 안칠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수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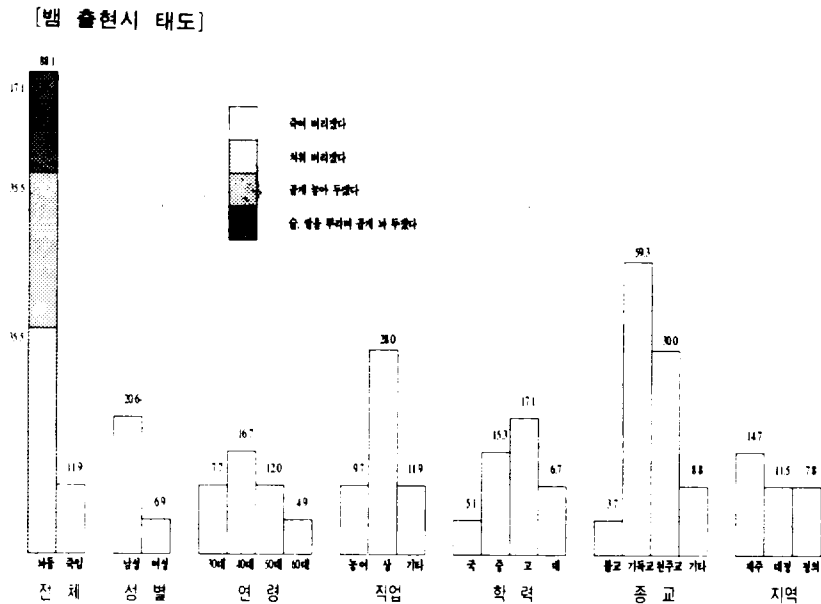
13. 칠성놀에 모신 신이 본래 뱀임을 알고 있다는 경우는 전체의 22.9%, 밭칠성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약간 모자란 응답을 보였다. 안칠성의 22.5%와 거의 일치하는 응답으로 역시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여서, 그 이유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iii-2. 밭칠성은 어떤 종류의 어떻게 생긴 뱀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 뱀

(5), 구렁이(2), 뱀 아님(1)으로 응답해 구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귀가 달렸다(12), 크다(1), 작다(1), 비늘이 있다(1), 누렁다(6), 보통이다(2), 검다(1), 붉다(1), 희다(2), 몸에 칠성무늬가 있다(1) 등으로 응답해 귀가 달리고 일반적으로 누런 색을 띠, 귀달린 구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단위 : 명, 복수응답).

IV 뱀신앙의식

14. 집에 뱀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죽여 버리겠다 11.9%, 어떤 방법으로 멀리 치워버리겠다 35.5%,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곱게 놓아 두겠다 35.5%, 술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 가도록 하겠다 17.1%는 응답을 했다. 남성 응답자의 20.6%가 죽여 버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의 6.3%만이 죽여 버리겠다고 했으며, 여성의 경우 구멍으로 들



※ 전체는 설문대상자 : 응답자 비율, 나머지는 변수별집단 : 응답 비율임. (단위 : %)

어가도록 곱게 놓아 두겠다는 응답과 술이나 쌀을 뿌리며 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응답의 합이 72.2%에 달했다. 기독교 신자의 59.3%, 천주교 신자의 30.0

%가 죽여 버리겠다고 한 반면, 불교 신자의 3.7%만이 죽여 버리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정의주민의 7.8% - 대정주민의 11.5% - 제주주민의 14.7%가 죽여 버리겠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21.6%(남성 10.7%), 60대 이상의 34.1%(30대 7.7%, 40대 15.9%, 50대 15.2%), 대정 주민의 9.8%, 제주 주민의 17.2%, 정의 주민의 21.4%가 술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여성, 60대 이상의 정의와 제주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앙태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뱀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신령스러운 것이기 때문 5.2%, 죽이면 보복하기 때문 26.1%, 예로부터 죽이지 않는 법이라고 들었기 때문 34.1%, 징그럽거나 무서워서 34.5%로 응답했다. 신령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은 남성 응답자의 1.9%, 여성 응답자의 7.2%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2.8%(30대) - 2.6%(40대) - 7.5%(50대) - 10.3%(60대 이상)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 수록 신령스러운 것이라 믿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상업을 하는 사람은 신령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앞에서 살펴 본 안칠성이나 밧칠성의 예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뱀은 농업의 풍등과 관련되는 것일 뿐 일반적인 富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전에는 농사의 풍등이 곧 부와 직결되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산업이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농사의 풍등과 부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비중이 커져서 농사의 풍등과 무관하게 부를 이룰 수도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蛇神이 지니고 있는 부신으로서의 면모는 잊혀지고 풍농신으로서의 면모만 인식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천주교 신자도 신령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정의 7.5%, - 제주 5.0% - 대정 1.9%로 나타나 역시 앞의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16. 뱀의 집에 나타난 것에 대해, 길한 징조 2.4%, 흉한 징조 32.4%, 길흉 무관 26.5%, 모름 38.7%로 응답해서 길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흉한 징조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17. 뱀을 죽인 사람은 몸이 아픈다거나 재산에 해를 본다 24.0%, 몸이 아픈다든지 재산에 해본다든지 반신반의다 30.3%, 죽여도 아무일 없다 16.8%, 모르겠다 28.8%로 응답했다. 남성의 9.8%, 여성의 35.2%가 몸이 아프거나

재산에 해를 본다고 응답해서 남녀차가 크게 나타난다. 연령이 많을 수록, 학력이 낮을 수록, 농업에 종사하거나 불교신자일수록 몸이 아프고 재산에도 해를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죽여도 아무일 없다는 경우, 남성의 26.3%, 여성의 11.7%로 남녀차가 크다. 불교신자의 9.5%, 기독교 신자의 53.6%, 천주교 신자의 47.6%가 같은 응답을 했는데, 역시 앞서 본 데이터와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들 중에도 뱀의 보복을 믿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신앙은 바뀌었지만 전통적인 사고는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지역별로는 대정 9.7% - 정의 12.4% - 제주 22.3%로 앞서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대정 지역에도 뱀에 대한 의식이 아직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iv-1. 뱀을 죽였을 때 어디가 아프는가에 대해서는 머리(14), 전신(14), 허리(2), 뼈(2), 다리 또는 발(8), 가슴 또는 심장(7), 몸통(1), 손(2), 눈(2), 배(1), 이(1), 고혈압(1)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어떻게 아프는가에 대해서는 쑤시거나 저린다(5), 식욕이 없어진다(2), 손이 썩는다(2) 등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는데, 뱀이 죽는 것처럼 같은 부위가 같은 모양으로 고통을 겪는다(1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결국 죽게 된다(7)는 응답도 많았다. 사람마다 다르다(2), 죽다 살다 하여 고통을 겪는다(1)는 응답도 있었다.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응답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고통을 겪는 방식에 대해서는 뱀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된다는 일반화되니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단위: 명, 복수응답).

18. 남이 죽인 뱀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대신 해를 당할 수 있다 38.6%, 아무 상관 없다 25.6%, 모르겠다 35.8%로 응답했다. 대신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매우 많다. 남성의 23.6%, 여성의 49.4%로 남녀차가 크며, 직업, 학력, 종교에 따른 데이터는 앞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나, 30대, 응답자가 40대, 50대보다 조금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로는 정의 35.3% - 제주 38.5% - 대정 44.3%로 나타나 대정지역의 보수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V. 뱀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인식

19. 뱀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의 처녀와는 혼사에 대해, 절대 안된다 28.4%,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 25.3%, 꺼리지만 본인들이 의사에 따르겠다 25.0%, 허망한 이야기다 25.0%로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이 75%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허망한 이야기이니 꺼리낌없이 하겠다는 응답만 보면 남성의 35.7%, 여성의 18.3%로 남녀차가 크다. 다른 변수는 앞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 22.1% - 대정 22.0%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의는 32.4%로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자가 나왔다. 절대 안된다는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 33.7%, - 대정 25.4% - 정의 21.6%로 나타났다.

20. 뱀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의 여학생에게 방을 빌려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안된다 28.7%, 가급적이면 안 빌린다 27.2%, 꺼리지만 딱하면 빌려 주겠다 17.4%, 꺼리낌없이 빌려 주겠다 26.6%로 응답했다. 73.4%가 부정적인 응답을 해서 19번 문항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변수에 따른 결과도 대체적으로 19번 문항과 유사한 결과치를 보여준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그대로 확인된 것도 있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있다.

1. 일반적인 사실

- 1) 정의지역이 뱀신앙의 중심지라는 통념이 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나, 제주도 전역에는 뱀신앙에 대한 뿌리깊은 정서적 반응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 2) 여성, 농어업 종사자, 고연령층, 불교신자일 수록 뱀신앙에 대해 전통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

2. 새롭게 확인된 사실

- 1) 안칠성과 밧칠성에 대한 신앙실태가 사뭇 상이하다. 밧칠성에 대한 신앙실태의 경우, 30대 이하 저연령층의 신앙의식이 매우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 2) 대정지역이 가장 반뱀신앙적 사고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시 뱀에 대한 의식의 전통적인 면모가 발견된다.
- 3) 뱀신앙 의식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와 그 효험에 대한 믿음 정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곧 외면적인 신앙실태와 내면적인 신앙실태가 그대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2), (3)을 통해서 뱀신앙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적인 압력에 따라 변모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4) 40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안칠성, 밧칠성 등 蠃신앙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60대 이상의 경우 70년대의 새마을 운동, 주택개량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40대인 경우는 교육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V. 結 論

이상 논의해 온 바를 종합하여 결론을 삼는다.

1) 제주도의 蛇神은 조상신으로서의 蛇神, 당신으로서의 蛇神, 일반신으로서의 蛇神이 있는데, 이는 一家 내지 一族次元, 部落共同體次元, 전도민차원으로 그 신앙 범위가 다를 뿐, 그 신의 성격에는 특징적 차이가 없다. 현재 穀神 또는 富神的 성격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이는 본래 농경사회의 龍蛇信仰에서 연유된 豐農神信仰이 이렇게 분화한 것이다.

2) 제주도의 蛇神信仰은 본원적으로 하나의 같은 성격의 신앙이지만, 여러 가지 사신신앙이 각각 시간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별개의 신앙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맨 먼저 들어온 것은 일반신으로서의 蛇神 칠성이라 보이니, 이는 제주도에 농경이 시작될 당시이거나 멀리 耽羅國時代의 일로 추정되며, 그것은 일반 민중이 豐農神으로 신앙했을 뿐 아니라, 통치자인 官에서도 풍농신으로 모셔 위했고, 고려의 중앙집권제하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답습되어 유교이념의 통치국가인 조선조시대까지 官廳神으로 계승되어 모셔온 것이 오늘날 관청할망당으로 그 잔영을 남기고 있다. 한편 후대에 들어온 蛇神들은 一家 내지 一族守護神인 조상신으로 머물러 있거나 그 신앙민이 확산되면서 부락공동체차원의 堂神으로 위해지고 있다.

3) 이 蛇神들의 속성은 어느 사신이나 모셔서 위해 주도록 알리는 방법으로 질병 등 재앙을 주고,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 먹으면 못 먹은 값' '큰 굻하면 큰 발 사고, 작은 굻하면 작은 발 사는 신'으로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신이 베푸는 은혜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는 제주도 巫神 일반의 공통된 성격이어서 사신에 한정된 특수한 속성은 아니다. 이것은 무속에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또 蠃은 죽어

서는 아니되며, 만일 죽었을 경우는 죽인 당사자나 그 죽은 시체를 본 사람이 병을 앓아 그 뱀을 재생시키는 의례를 하여 뱀을 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념도 그 신앙을 강화시키는 방편의 하나이다.

4) 토산 여드렛당신은 딸에서 딸로 母系繼承을 하고, 이를 잘 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일반이 인식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조상신이나 당신들도 父系繼承이나 母系繼承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신만을 이방인의 신앙처럼 꺼리는 것은 편견이다. 이 당신에 災殃神의 성격을 강조한 것은 그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다.

5) 이와 같은 蛇神信仰은 제주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본토의 <업> 신앙과 같은 것이다. 업과 제주도의 蛇神은 蛇神으로서의 성격이나 형체, 모시는 장소나 치제방법, 신앙의 계승이나 신앙태도 등이 같다. 한편 한국본토의 <터줏가리>, <조상단지> 등이 제주도의 밭칠성, 안칠성, 그리고 조상신으로서의 사신을 모시는 방법과 같은데, 한국본토에는 蛇神이라는 관념이 거의 없다. 여기에 <터줏가리>, <조상단지>신앙과 유관성이 예상되나 현단계로서는 그 관계의 명확한 단언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서도 <업>신앙과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제주도의 蛇神信仰이 고대로 올라가면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본토의 사신신앙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은 본래 龍蛇信仰인 豐農神信仰으로서 한국본토에서는 민간신앙으로 전승되다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비해, 제주도에서는 일찍이 통치권자인 관의 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 전승되었고, 一家次元에서 전도민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면서 穀神, 富神으로 그 기능이 분화되어 현재도 민간생활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특성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蛇神信仰은 제주도의 문화를 특성지워 주는 신앙의 하나라 할 것이다.

6) 현재의 뱀신앙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새마을 운동, 주택개량, 그리고 교육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등 제반 사회 변동에 의해 뱀신앙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뱀신앙 의식은 여전히 제주도 전역에 깊게 남아 있다.

신앙민들은 안칠성, 밭칠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면서도 관습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예가 많다. 사회변동에 따라 뱀신앙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있지만, 오랜 전통을 하루 아침에 버리지는 못하고 조상들이 하던 대로 묵수하

고 있는 경향이 짙다.

甁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의 여자와 혼인을 꺼려하고(75%), 그들에게 방을 빌려 주기를 기피하는(73.4%) 등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견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 이것이 제주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의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甁 신앙이 본래 용사신앙과 관련된, 농경·풍요신으로 모셔지던 것이라는 점을 도민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맹신적인 사회행위에서 벗어나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서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나 천주교 등 외래종교로甁 신앙을 대체하거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甁 신앙에 대한 맹신적 태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못된다. 다만, 조상들의 생산양식 상 이러한 신앙이 필요했으며,甁 신앙이 곧 단순한 미신이었던 것이 아님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의 사신신앙을 한국본토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에 멈추었다. 이 신앙의 해명은 주변민족의 사신신앙과의 비교까지 확대하여 고찰하여야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부록 : 설문지>

제주도민의 뱀신앙 의식 조사 설문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는 제주도 전통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제주도의 뱀신앙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타도와 달리 뱀신앙이 성행된다는 문화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의 원류·본질·변화상 등을 구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위하여 현재 도민의 뱀신앙에 대한 의식을 조사, 파악해 보고자 이 설문을 하오니 학문 연구에 협조하여 주시는 뜻에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응답은 순수 학술 연구에만 활용할 뿐, 다른 용도에는 쓰지 않을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장

※ 다음 물음에 대하여 해당되는 답의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i.

1. 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혈연 조상 말고, 뱀이라고 전해지는 일월조상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3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 3) 모르겠다 (3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i-1. 뱀이라고 전해지는 일월조상이 있으시면 어디에 어떻게 모십니까?

ii.

2. 댁에서는 명절이나 제사 때 고광에 차려 올립니까?
 - 1) 그렇다.
 - 2) 전에는 올렸었지만 지금은 안한다.
 - 3) 예전부터 아니했다.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3. 고광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무슨 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1) 안칠성이라고 알고 있다.
 - 2) 모른다.
4. 제사나 명절 때 고광에 제물을 올리고 있다면 그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성을 하면 그 덕이 있다고 믿는다.
 - 2) 효험은 믿지 않지만 조상들이 해운 것이라 제물을 올리는 것 뿐이다.
5. 안칠성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고광의 곡식을 지켜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다. 곧 富神.
 - 2) 집안을 지켜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 주는 신이다. 곧 家內守護神.
 - 3) 부자가 되게도 하고 편안하게 지켜 주는 신이다. 곧 富神 겸 家內守護神.
 - 4) 모르겠다.
6. 안칠성은 본래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1) 뱀이라고 알고 있다.
 - 2) 뱀인지 무엇인지 전연 모르겠다(9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ii-1. 안칠성이 본래 뱀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과 생김새를 적어 주십시오.

iii.

7. 댁에는 집 뒤에 칠성놀이(뒤탈방, 주춧돌을 덮어 모신 것)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전에는 있었는데 없애 버렸다.
 - 3) 예전부터 없었다. (1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8. 칠성놀이 있다면 명절이나 제사 때 제물을 차려 올리십니까?
- 1) 올린다.
 - 2) 전에는 올렸는데 지금은 안 올린다.
 - 3) 애초부터 안 올렸다.

9. 칠성놀이 있다면 그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성을 하면 그 덕이 있다고 믿는다.
2) 효험은 믿지 않지만 조상들이 해온 것이라 제물을 올리는 것 뿐이다.
- iii-1. 칠성놀이 있다면 칠성놀 속에 무엇을 어떻게 놓는지 써 주십시오.
10. 칠성놀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갈아 덮을 터인데,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갈아 덮습니까?
1) 음력 ()월에 심방을 빌어서 비념을 하고 갈아 덮는다.
2) 음력 ()월에 제물을 차려 올리고 가장이 갈아 덮는다.
3) 음력 ()월에 제물을 차려 올리고 주부가 갈아 덮는다.
4) 갈아 덮지 않고 방치하여 내버렸다.
11. 칠성놀에 모신 신은 무슨 신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1) 밧칠성 또는 뒷할망이라는 신임을 알고 있다.
2) 무슨 신인지는 모른다.
12. 칠성놀에 모신 신은 어떤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집안을 지켜서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이다.
2) 집안을 지켜서 집안을 편안하게 해 주는 신이다.
3) 집안을 지켜서 부자도 되게 해 주고 집안을 편안하게 해 주는 신이다.
4) 모르겠다.
13. 칠성놀에 모신 신은 본래 무엇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1) 뱀이라고 알고 있다.
2) 뱀인지 무엇인지 전연 모르겠다(18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 iii-2. 칠성놀이 모신 신이 본래 뱀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과 생김새를 적어 주십시오.

iv.

14. 귀하는 만일 집 마당이나 집 안에 뱀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죽여 버리겠다. (20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 2) 죽이지는 않고 어떤 방법으로 멀리 치워 버리겠다.
 - 3)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도록 곱게 놓아 두겠다.
 - 4) 술이나 쌀을 뿌리며 곱게 들어가도록 하겠다.
15. 뱀이 나타났을 경우 죽이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뱀은 집안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 2) 뱀은 죽이면 꼭 축하여(보복하여) 해를 입기 때문이다.
 - 3) 예로부터 죽이지 않은 법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 4) 징그럽거나 무서워서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뱀이 집에 나타나면 그것은 어떤 징조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길한 징조다.
 - 2) 흉한 징조다.
 - 3) 길흉에 관계가 없다.
 - 4) 모르겠다.
17. 뱀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몸이 아프거나 재산에 해를 본다.
 - 2) 몸이 아픈대든지, 재산에 해를 본다든지, 말은 들었지만 반신반의다.
 - 3) 죽여도 아무 일이 없다.
 - 4) 모르겠다.
- iv-1. 몸이 아프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프는지 아래쪽에 적어 주십시오.
18. 만일 남이 죽인 뱀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 사람이 죽인 죄를 대신 돌려써서 불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 2) 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
 - 3) 모르겠다.

v.

19. 제주도에는 뱀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이 있다고 하고, 그 마을 처

녀는 시집오면 뱀귀신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마을의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부인으로 맞이 하겠습니까?

- 1) 절대 아니 하겠다.
- 2)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겠다.
- 3) 마음에는 꺼리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면 혼인시키거나 장가들겠다.
- 4) 허망한 이야기이니 거리낌없이 하겠다.

20. 만일 귀하의 집이 넓어서 방을 빌리려고 할 때, 뱀을 신으로 모신다는 마을 여학생이 방을 빌려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절대 안 빌려 주겠다.
- 2) 가급적이면 안 빌려 주고, 다른 학생에게 빌려 주겠다.
- 3) 마음에는 꺼리지만 사정이 딱하면 빌려 주겠다.
- 4) 아무 거리낌없이 빌려 주겠다.

※ 귀하(응답하시는 분)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1. 성별 : 1) 남 2) 여
2. 연령 :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이상
3. 직업 : 1) 농업·어업 2) 상업 3) 기타
4. 학력 : 1) 국졸 이하 2) 중졸 이하 3) 고졸 이하 4) 대졸 이상
5. 종교 :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기타
6. 거주지 : 시·읍·면 동·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 54-2310

濟州島 靈神話와 信仰 研究

유의도

구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지역	
1 (일월조상 유무)	χ^2	7.16875	11.05571	2.79527	8.87886	3.70442	5.75114
	S	0.0278**	0.0290**	0.5926	0.1805	0.7166	0.2185
	df	2	6	4	6	6	4
2 (고광에 제물진설 여부)	χ^2	2.13350	16.83949	16.95881	17.07679	16.67276	43.23214
	S	0.3438	0.0009***	0.0020***	0.0090***	0.0105**	0.0000***
	df	2	6	4	6	6	4
3 (안칠성인지 여부)	χ^2	0.65516	6.97778	12.27623	10.81995	0.37411	6.07532
	S	0.4183	0.0726*	0.0022***	0.0127**	0.9455	0.0479**
	df	1	3	2	3	3	2
4 (안칠성 효험)	χ^2	1.09409	4.48353	0.07672	3082320	2.23475	3.92727
	S	0.2956	0.2138	0.9624	0.2810	0.5251	0.1403
	df	1	3	2	3	3	2
5 (안칠성의 직능)	χ^2	4.11765	5.59642	16.14842	7.00143	20.17654	12.36551
	S	0.2490	0.7795	0.0130**	0.6370	0.0169**	0.0543*
	df	3	9	6	9	9	6
6 (안칠성은 본래 무엇이었)	χ^2	0.58923	3.83117	1.34326	2.75462	1.38560	10.10778
	S	0.4427	0.2803	0.5109	0.4310	0.7089	0.0064***
	df	1	3	2	3	3	2
7 (칠성놀 존재 여부)	χ^2	2.90347	9.44636	3.88375	6.44756	22.24449	9.31011
	S	0.2342	0.1500	0.4220	0.3750	0.0011***	0.538
	df	2	6	4	6	6	4
8 (칠성놀에 제물진설 여부)	χ^2	0.37728	12.70300	2.23388	6.09441	3.00748	3.49804
	S	0.8281	0.0480**	0.6928	0.4127	0.5566	0.4782
	df	2	6	4	6	4	4
9 (칠성놀 효험)	χ^2	0.00000	7.75873	3.11458	3.42857	3.26389	0.4891
	S	1.0000	0.0513*	0.2107	0.3301	0.1955	0.8250
	df	1	3	2	3	2	1
10 (칠성놀 알아듣기)	χ^2	6.07031	9.72917	21.79167	12.50607	21.4881	7.52500
	S	0.1082	0.3729	0.0013***	0.1863	0.9055	0.2750
	df	3	9	6	9	6	6
11 (뱃칠성 인지 여부)	χ^2	3.10118	0.75042	8.50945	6.72465	6.45524	0.16729
	S	0.872	0.8613	0.0142**	0.0812*	0.0914*	0.9198
	df	1	3	2	3	3	2

구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지역	
12 (뱃칠성의 직능)	χ^2	2.90155	9.79690	3.71869	3.83791	12.14566	2.44304
	S	0.4071	0.3672	0.7147	0.9218	0.2052	0.8748
	df	3	9	6	9	9	6
13 (뱃칠성은 본래 무엇)	χ^2	2.23935	0.94095	1.98553	8.97003	5.63512	2.16691
	S	0.1345	0.8136	0.3706	0.0297**	0.1308	0.3384
	df	1	3	2	3	3	2
14 (뱀이 나타났을 때)	χ^2	29.91843	18.34992	9.45196	19.73228	90.82619	7.36498
	S	0.0000***	0.0313**	0.1497	0.0196**	0.0000***	0.2884
	df	3	9	6	9	9	6
15 (뱀 죽이지 않는 이유)	χ^2	23.96278	15.16331	6.92429	28.58052	10.09102	6.09320
	S	0.0000***	0.0865*	0.3279	0.0008***	0.3432	0.4128
	df	3	9	6	9	9	6
16 (뱀출현은 길흉?)	χ^2	29.08378	22.13809	5.64742	21.17463	20.34481	16.12150
	S	0.0000***	0.0085***	0.4638	0.0119**	0.0159**	0.0131**
	df	3	9	6	9	9	6
17 (뱀 죽인 사람은?)	χ^2	30.85235	37.85905	27.90315	57.51731	60.40886	9.18732
	S	0.0000***	0.0000***	0.0001***	0.0000***	0.0000***	0.1633
	df	3	9	6	9	9	6
18 (남이 죽인 뱀을 보았을 때)	χ^2	20.91128	23.02136	5.40382	31.88023	34.84647	2.99743
	S	0.0000***	0.0008***	0.2483	0.0000***	0.0000***	0.5583
	df	2	6	4	6	6	4
19 (뱀모시는 마을 여자를 머리로 받아 들일 것인지)	χ^2	12.70092	8.98597	5.85960	8.52433	28.85481	21.73618
	S	0.0053***	0.4386	0.4391	0.4823	0.0007***	0.0014***
	df	3	9	6	9	9	6
20 (뱀모시는 마을 학생에게 뱀 빌려줄 것인가)	χ^2	13.48319	7.54994	5.07958	12.92684	29.98629	14.91263
	S	0.0037***	0.5801	0.5336	0.1659	0.0004***	0.0209**
	df	3	9	6	9	9	6

***p<0.001, **p<0.05, *p<0.01)

助羅文化 15號

문항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지역											
		남	녀	계	30	40	50	60	계	농어	상	기타	계	국	중	고	대	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계	제주	대정	경의	계																																														
10	1	0	28.6	28.6	0	10.0	5.0	15.0	30.0	19.0	0	9.5	28.6	5.3	15.8	5.3	0	26.3	15.8	0	5.3	5.3	26.3	9.1	0	18.2	27.3																																														
		0	37.5	37.5	0	40.0	12.5	50.0	28.6	0	0	33.3	16.7	60.0	14.3	0	0	0	23.1	0	25.0	50.0	26.3	0	0	18.2	40.0																																														
	2	4.8	0	4.8	0	5.0	0	0	5.0	0	4.8	0	4.8	0	0	5.3	0	5.3	5.3	0	0	0	5.3	0	0	9.1	9.1																																														
		20.0	0	20.0	0	20.0	0	0	20.0	0	0	0	10.0	0	0	14.3	0	0	7.7	0	0	0	0	0	0	0	9.1	20.0																																													
	3	4.8	23.8	28.6	0	0	30.0	5.0	25.0	23.8	0	4.8	28.6	21.1	0	5.3	0	26.3	21.1	0	5.3	5.3	31.6	22.7	0	4.5	27.3																																														
	20.0	31.3	51.3	0	0	50.0	10.0	33.3	35.7	0	16.7	35.7	66.7	0	14.3	38.1	5.3	10.5	21.1	5.3	42.1	26.3	0	36.8	18.2	4.5	13.6	36.4																																													
	60.0	31.3	91.3	10.0	40.0	37.5	33.3	35.7	35.7	0	30.0	35.7	16.7	40.0	57.0	10.0	38.5	0	50.0	0	50.0	0	36.4	10.0	30.0	10.0	30.0																																														
	계	23.8	76.2	100	5.0	25.0	40.0	30.0	100	66.7	4.8	28.6	100	31.6	26.3	36.8	5.3	100	68.4	0	21.1	10.5	100	50.0	4.5	45.5	100																																														
11	1	8.2	18.5	26.7	2.8	12.7	8.1	4.2	27.8	19.6	2.2	5.6	27.4	9.1	8.7	7.6	1.8	27.2	21.1	1.1	0.8	4.9	27.9	13.9	5.1	8.1	27.0																																														
		20.5	30.8	51.3	22.2	28.3	28.0	30.8	34.0	24.0	16.9	9.2	1.1	4.8	15.1	3.6	4.7	4.0	2.2	14.4	10.0	0.7	1.1	2.2	14.1	7.0	3.0	4.7	14.7																																												
	2	31.7	41.6	73.3	9.9	32.0	20.8	9.5	72.2	38.1	7.0	27.4	72.6	16.7	18.5	28.0	8.7	72.8	44.5	8.3	4.9	14.3	72.1	35.5	14.2	23.3	73.0																																														
		79.5	69.2	148.7	77.8	71.7	72.0	69.2	66.0	76.0	83.1	10.0	25.7	27.2	36.6	10.5	10.0	68.7	9.4	5.7	19.2	10.0	49.3	19.3	31.4	10.0	4.5	45.5	100																																												
		계	39.9	60.1	100	12.7	44.7	28.9	13.7	100	57.8	9.3	33.0	100	25.7	27.2	36.6	10.5	100	68.7	9.4	5.7	19.2	10.0	49.3	19.3	31.4	100																																													
	1	0.4	1.8	2.1	0	0.7	1.1	0.4	2.1	0.4	0.4	1.1	1.8	0.7	0.4	1.1	0.4	2.5	1.5	0.7	0.4	0	2.6	1.7	0	0.7	2.3																																														
	2	5.6	9.2	14.8	2.8	6.3	3.5	2.1	14.7	9.2	1.1	4.8	15.1	3.6	4.7	4.0	2.2	14.4	10.0	0.7	1.1	2.2	14.1	7.0	3.0	4.7	14.7																																														
	3	8.5	14.1	22.5	2.5	10.5	5.6	4.6	23.2	14.0	1.8	7.0	22.8	6.1	5.7	7.9	1.8	21.7	17.5	0.7	1.1	4.5	23.8	10.4	4.3	7.7	22.4																																														
	4	27.1	33.5	60.6	6.0	26.7	21.1	6.3	60.0	34.6	6.3	19.5	60.3	14.1	18.1	23.5	5.8	61.4	33.3	7.4	4.5	12.3	59.5	29.8	12.0	18.7	60.5																																														
	계	41.5	58.5	100	11.2	44.2	31.2	13.3	100	58.1	9.6	32.4	100	24.5	28.9	36.5	10.1	100	64.3	9.7	7.1	19.0	48.8	19.4	31.8	100	100																																														
	1	7.2	15.2	22.5	2.2	10.8	6.8	3.6	23.4	14.7	1.9	5.6	22.2	4.8	9.2	7.7	0.7	22.4	17.9	1.5	0.4	4.2	24.0	11.0	6.2	5.8	22.9																																														
	2	34.1	43.5	77.5	9.0	34.2	24.5	9.0	76.6	43.6	7.5	26.7	77.8	21.0	18.8	28.7	9.2	77.6	46.4	8.4	6.1	15.2	76.0	38.0	14.7	24.3	77.1																																														
	계	41.3	58.7	100	11.2	45.0	31.3	12.6	100	58.3	9.4	32.3	100	25.7	27.9	36.4	9.9	100	64.3	9.9	6.5	19.4	100	49.0	20.9	30.1	100																																														
	1	8.8	3.6	12.4	1.0	7.4	3.5	0.6	12.6	5.6	2.3	4.0	12.0	1.3	4.3	6.3	0.7	12.5	2.4	5.5	2.1	1.7	11.7	7.3	2.1	2.4	11.9																																														
	2	20.6	6.3	26.9	7.7	16.7	12.0	4.9	9.7	28.0	11.9	5.1	15.3	17.1	6.7	5.1	13.3	17.1	6.7	3.7	59.3	30.0	8.8	14.7	11.5	7.8	8.0	10.1	35.5																																												
	3	18.6	16.3	34.9	6.1	14.8	10.6	2.9	34.3	19.6	2.3	12.6	34.6	7.9	10.2	11.5	5.9	35.5	21.3	2.7	1.7	9.6	35.4	17.4	8.0	10.1	35.5																																														
	4	10.7	25.1	35.8	4.5	15.2	11.0	5.2	35.8	21.3	3.0	12.3	36.5	10.2	8.9	14.1	2.3	35.5	26.8	0.7	3.1	5.2	35.7	16.5	6.7	12.2	35.5																																														
	5	4.6	12.4	16.9	1.0	7.1	4.5	4.5	17.1	11.6	0.7	4.7	16.9	6.3	4.6	4.6	1.0	16.4	13.7	0.3	0	3.1	17.2	8.6	1.8	6.7	17.1																																														
	계	42.7	57.3	100	12.6	44.5	29.7	13.2	100	58.1	8.3	33.6	100	25.7	28.0	36.5	9.9	100	64.3	9.3	6.9	19.6	100	49.8	18.7	31.5	100																																														
	1	0.7	14.5	15.2	0.4	1.1	2.2	1.5	5.2	4.2	0	1.5	5.7	2.3	1.9	0.8	0	4.9	3.9	0	0	1.2	5.1	2.4	0.3	2.4	5.2																																														
	2	5.2	21.6	26.8	2.6	10.0	7.4	6.3	26.4	17.6	0.8	8.4	26.7	11.4	8.4	4.9	1.5	26.2	22.0	0	1.2	5.3	28.6	11.5	5.9	8.7	26.1																																														
	3	13.8	19.7	33.5	5.6	15.6	8.9	4.1	34.2	18.7	3.8	11.5	34.0	8.7	6.5	14.8	4.6	34.6	23.5	3.1	1.6	7.5	35.7	15.3	7.0	11.8	34.1																																														
	4	18.6	16.0	34.6	4.8	15.6	11.2	2.6	34.2	18.7	2.7	12.2	33.6	5.7	11.0	13.3	4.2	34.2	20.8	2.0	2.4	5.5	30.6	19.5	5.6	9.4	34.5																																														
	계	38.3	61.7	100	13.4	42.4	29.7	14.5	100	59.2	7.3	33.6	100	28.1	27.8	33.8	10.3	100	70.2	5.1	5.1	19.6	100	48.8	18.8	32.4	100																																														

뱀 神話 · 信仰 關係 論著 目錄

- 개발제주사편집부, 사신칠성 :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뱀, 개발제주 16, 1977.
- 고광민, 제주의 신당들(5) : 현씨일월당(성산읍 신천리), 제대신보19(209호), 제대신보사, 1982. 5. 3.
- , 토산마을 뱀신앙이야기, 월간관광제주8, 월간관광제주사, 1985. 5.
- 곽의숙, 구렁덩덩신선비의 상징성 고찰, 국어국문학 25, 부산대 국문과, 1988.
- , 뱀서방형 설화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8.
- 김동섭, 兪山堂 본풀이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영덕, 제주도의 사신앙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金榮敦 · 玄容駿 · 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홍철, 蛇性系 倉寺설화 연구 : 부석사 선묘설화를 중심으로, 우봉 정종목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0.
- , 한국 蛇龍說話연구 : 부석사 선묘설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 학위논문, 1990.
- 羅貞姬, 濟州島 民間信仰調查(1) : 濟州島 蛇信仰과 蛇의 感染現象에 대하여, 제대사회과교육3, 제주대 사회교육과, 1985.
- 文武秉, 濟州島 堂信仰 研究,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1993.
- 박종성,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고전문학연구3, 고전문학연구회, 1986.
- 李 健, 濟州風土記, 1635.
- 이관숙, 濟州島 民間信仰 調查(2) : 濟州島의 蛇信仰에 대한 民譚事例, 제대사회교육4, 제주대 사회교육과, 1986.

-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6, 제주도연구회, 1989.
- 장덕순, 강여제물 : 제주도 김녕사굴의 전설, 샘터 22, 샘터사, 1972. 1.
- 장주근, 家庭信仰, 韓國民俗大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 民間信仰, 韓國民俗學概說, 民衆書館, 1974.
- , 部落 및 家庭信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 조상단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濟州島部落誌1-4, 1989~1991.
- 제주도,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 島越獻三郎, 蛇神と信仰, 耽羅1, 日本耽羅學會, 1988.
- 진성기, 南國의 巫歌,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8.
- , 뱀신앙과 제주도민, 南國의 巫俗, 형설출판사, 1987.
- , 제주도의 뱀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0, 한국문화인류학회, 1978.
- 진원일, 전설을 따라서 : 아가씨를 제물로 헌정, 제주도47, 제주도, 1970.
- 최길성, 터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최상수, 뱀에 얽힌 민속과 전설, 월간 제주상공 52, 제주상공회의소, 1977. 1.
- 秋葉 隆, 濟州島の蛇鬼, 朝鮮民俗誌, 名著出版社, 1954.
- 風俗巫音(祝祀文)上·下,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4.
- 현길언, 뱀 : 뱀신설화에 대한 일고찰, 석주선박사교회기념논문집, 동간행위원회, 1981.
- ,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인식 : 이형상목사의 신당철폐에 대한 설화적 인식, 耽羅文化2,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1983.
- 현용준, 서귀포송산동칠성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 전설과 신화 : 김녕사굴, 관광제주13, 월간 관광제주사, 1985. 10.
- , 濟州島巫俗研究, 집문당, 1986.

——,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1980.

——, 제주도 傳說, 서문당, 1976.